

우리 대학의 국제화 현황 및 발전 방안

2023.8.31

제 출 문

강릉원주대학교 기획평가과장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 대학의 국제화 현황 및 발전 방안」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9.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정책연구과제팀

참여연구진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강승호

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강상국

생명과학대학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 이충일

예술체육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권진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 부교수 김규찬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조명선

제1장 서론	1
1. 연구개요	3
2. 연구 내용	3
3. 대학 국제화의 기대 효과	4
제2장 환경분석	7
1.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 가능성 및 전략	9
제3장 외국인유학생 정책과 강릉원주대학교의 전략	23
1. 도입	25
2. 정부의 외국인유학생 정책	25
3. 강릉원주대학교의 대응: 현황과 전략	31
4. 평가와 제언	37
제4장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조사	41
1. 설문 목적 및 조사응답 개요	43
2. 조사 분석결과	47
제5장 대학의 국제화 방안 및 산학연 협력 사례 I: 우즈베키스탄(해양수산분야) 협력	59
1. 목적	61
2. 개요	61
3. 국가개항 및 사업대상지 분석	63
4. 추진 여건 분석 및 타당성	67
5. 기대효과	70
6. 정부 지원과 대학참여의 필요성	71
7. 결론 및 제언	73
제6장 대학의 국제화 방안 및 산학연 협력 사례 II: 베트남 협력 사례	75

1. 목적	77
2. 베트남과 협력의 배경 및 필요성	77
3. 우리대학의 베트남 협력 사례	79
4. 결론 및 제언	93
제7장 대학의 국제화 방안 및 사례: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95
1. 국제개발협력의 동향	97
2.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분야별 협력	101
3. 기관별 교육분야 주요 협력 프로그램	104
4. 우리대학의 주요 학과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연계(예시)	111
5. 결론 및 제언	114
제8장 요약 및 결론	117

Ⅰ 표목차 Ⅰ

〈표1〉 글로벌문화탐방 프로그램	16
〈표2〉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교과과정 사례	19
〈표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학위과정)	29
〈표4〉 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현황 연도별 추이	32
〈표5〉 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33
〈표6〉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화 과제 체계	34
〈표7〉 소속별 성별 응답자 현황	44
〈표8〉 소속별 연령별 응답자 현황	45
〈표9〉 소속별 직급별 응답자 현황	45
〈표10〉 소속별 근무기간별 응답자 현황	46
〈표11〉 우리 대학의 국제화 목적	47
〈표12〉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들에 대한 중요도	49
〈표13〉 본인 학과 전공분야와 관련된 SDGs 목표	53
〈표14〉 본인 학과 전공 연구와 교육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이나 관계	54
〈표15〉 SDGs 해당목표	52
〈표16〉 주요 거시경제지표 GDP 성장률	64
〈표17〉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기관 수산분야 전문 인력 양성 현황	65
〈표18〉 우리대학의 글로벌 현장실습 사례	80
〈표19〉 우리대학의 베트남 산학연계 네트워크 구축실적	84
〈표20〉 우리대학 베트남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활동 사례	86
〈표21〉 우리대학 베트남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활동 사례	88
〈표22〉 우리대학 유학생 입학 현황	89
〈표23〉 우리대학 베트남 유학생 학과별 입학 현황	91

〈표24〉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가	98
〈표25〉 분야별 공적개발원조 현황	101
〈표26〉 사업형태별 공적개발원조 현황	102
〈표27〉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주요 사업내용	105
〈표28〉 글로벌 연수사업의 유형	106
〈표29〉 국별연수 해당 국가	106
〈표30〉 글로벌 연수사업의 추진 현황	108
〈표31〉 강원도 및 유사 대학 글로벌 연수 추진 현황	109
〈표32〉 글로벌 연수사업 우수 사례	110
〈표33〉 우리대학의 주요 학과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연계	112

〈그림1〉 5대 추진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10
〈그림2〉 강원도의 글로벌 미래 청사진	11
〈그림3〉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11
〈그림4〉 해외자매대학	14
〈그림5〉 교환학생 프로그램	15
〈그림6〉 국제도우미	17
〈그림7〉 우리대학 학생들의 해외 유학	18
〈그림8〉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30
〈그림9〉 강원원주대학교 외국인현황 연도별, 유형별 추이	32
〈그림10〉 강원1도1국립대 사업 체계	35
〈그림11〉 강원1도1국립대 사업 주요 추진과제	35
〈그림12〉 강원1도1국립대 대학혁신 대표 프로그램	36
〈그림13〉 강원1도1국립대 성과관리시스템	37
〈그림14〉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	77
〈그림15〉 베트남의 현황	78
〈그림16〉 현장실습의 이점	79
〈그림17〉 베트남 글로벌 기업과의 지속적 현장실습 진행 사례	82
〈그림18〉 베트남 글로벌 기업과의 현장실습 진행후 취업 연계 사항	83
〈그림19〉 국제화 산학협력 연계체계	84
〈그림20〉 베트남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85
〈그림21〉 중점협력국 분포	98

〈그림22〉 23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계획	100
〈그림23〉 23년 공적개발원조 지역별 예산 분배율	101
〈그림24〉 23년 공적개발원조 분야 및 형태	102
〈그림25〉 글로벌 연수사업의 추진 절차	107
〈그림26〉 23년 글로벌연수 추진 기관별 현황	108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목적
 2. 연구 내용
 3. 대학 국제화의 기대효과

1. 연구개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격차 등 현시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 견인을 목표로 하기위해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벌(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함.

글로벌 3.0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융합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에서도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를 존중하고 활용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함. 이 개념을 대학 국제화와 연계하여 이해하면, 대학의 국제화는 전 세계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함.

이상의 연구 배경 이외에도 우리 대학 국제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됨. 우리 대학은 최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양함. 작년도 교수회 정책과제 “제4대 반석섭 총장 중간평가 및 대학 발전방안 보고서”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가장 미흡한 분야의 하나로 ‘대학 국제화’ 분야가 지적되고 있음.

분야별 그리고 국별 협례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대학의 국제화 방향 설정과 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23년 6월 ~ 9월 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 대학(강원도)의 글로벌화 가능성 및 전략

우리 대학 소재 지역 자치기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화 전략(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과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 전략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 대학과의 강원도 연계 협력 및 글로벌화 전략 방안을 도출함.

-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강릉원주대학교의 전략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유학생 전략에 대해 논의함.

- 대학 국제화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우리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의 국제화 목적은 무엇인지,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수준을 설문함. 이를 통하여 필요도를 도출하여 정책적 순위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대학의 국제화(글로벌화) 목표로 현재 많은 대학 뿐 아니라 기관, 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개념과 관련한 인식조사도 아울러 진행하고자 함.

- 분야별 협력 사례: 해양수산분야(우즈베키스탄-스마트양식기술지원)/관광경영

해양수산분야(우즈베키스탄-스마트양식 기술지원): 우리 대학이 보유한 연구역량(전문인력, 기술 등)을 활용하여 2중 내륙국가인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양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이를 통해 식량난과 고용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육류중심의 소비문화 개선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위한 기술지원과 지속가능한 상호 교류 및 발전이 가능한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그 과정을 사례로 제시함.

- 국별 협력 사례: 베트남

우리대학과 베트남 산·학·관·연 네트워크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발전 관계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의 실천적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우리대학은 베트남과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공동연구, 산학연공동과제의 지속적인 쌍방향(아웃바운드(In/Out Bound) 협력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화협력 실천적 사례를 제시함.

- 우리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우리 대학에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중점지원국가, 지원 분야를 살펴보고 최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정책 방향을 점검함. 이를 기반으로 교육분야 적용가능한 사업과 지원의 절차를 대략적으로 제시함. 우리대학과 유사한 규모에서 실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로 우리 대학 학과들과의 연관성과 기여 방안 예시를 제안함.

3. 대학 국제화의 기대 효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고물가와 저성장 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인력 확보와 인재 양성: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을 유치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 국제적 연구 및 기술 협력: 해외 대학들과의 국제적 연구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과 지식을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를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글로벌 시장 개척: 해외 학생들의 유입과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캠퍼스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 이러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 관점과 문화적 이해가 깊어지며, 세계 각국과의 협력과 평화를 촉진할 수 있음.
- 국제 교류 및 학생 유치 촉진: 2022 대학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의 해외 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 기회를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국제 교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됨.
- 외국인 학생 다양성 증대: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학생 유치를 통해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내국인 학생에게도 글로벌 시민으로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음.
-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화는 학생들의 유입과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해외 학생들의 유치와 교류, 정주는 지역의 주거, 식품,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침.
- 국제적 인지도 증진: 국제적으로 더욱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고품질 교육과 연구 역량의 제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제2장

환경분석

1.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 가능성 및 전략

1.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 가능성 및 전략

1.1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화 전략 및 우리 대학 연계 협력 방안

가.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 19일 10년 대계 청사진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크게 관광·산업 SOC 3대 분야로 구분을 하여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구현하는 구상을 제시를 함.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등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5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접경지역 산업) 등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과 강원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 육성을 하고자 함.

- 5대 관광벨트 (DMZ 생태벨트, 스마트 휴양도시벨트, 고원 웰니스벨트, 글로벌 관광도시벨트, 해양설악벨트) 등을 통하여 체류형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한 강원형 글로벌 관광 환경 구축

-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단지를 신규 조성을 통해 제조산업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노후 산업 단지에 대한 고도화 전략을 통하여 산업단지 국제 경쟁력 향상

-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팜·푸드테크 산업화·신산림 관광모델 구축, 정원의 산업화 등을 통하여 산업에 대한 융복합 고도화를 추진

- 항만 및 배후지 개발 등 바닷 길과 하늘 길 에대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지로 부상

- 원주시에 반도체 산업단지, 디지털 헬스케어 메카, 그린 스타트업 타운, 국립전문과학관, 제 2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추진할 계획임.

- ICT산업 육성 및 주변 숙박서비스업 및 스마트 워케이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개발, 글로벌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 ICT, 관광연계산업, 의료서비스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고도화함.

-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본격 시행되는 1년 후('24년 6월), 법정계획으로 수립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의 정책방향 및 기본전략등으로 활용하여 향후, 산업·복지·경제·지역사회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세밀하고 촘촘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나갈 계획임.

<5대 추진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글로벌 네트워크
신발전축 구축**

- 한반도 국토비전 연계 공간 형성
- 동북아 Gate-way 네트워크 구축
- 강원 신발전축 : 3×4 특화 벨트 설정

**미래 첨단 패적·
융복합 산업 육성**

- 미래 기술집약형 농축산업 육성
- 해양자원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 첨단 패적·융복합산업 거점화
- 창조적 이머징섹터(Emerging Sector) 기반 구축
- 동북아 고품격 명품관광산업 실현

**녹색·첨단이 융합된
명품공간 조성**

- 토지의 복합적 이용 및 효율적 활용
- 녹색 첨단 융·복합도시 육성
- 자원절약·순환형 녹색 농산어촌 정착
- 육해공 글로벌 복합교통망 구축
- 안심생활·첨단방재 실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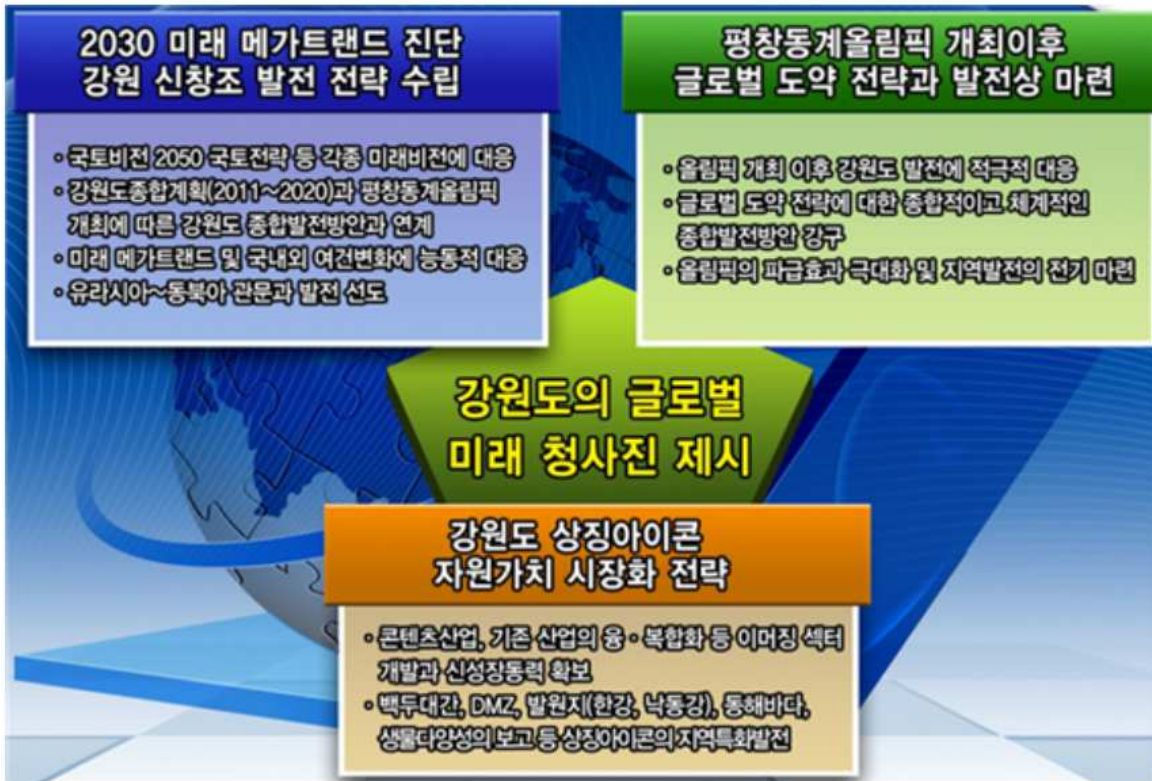
-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수립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추진
-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건강 100세 실현
- 지속발전 교육환경 구현

**잠재자원의 고부가
시장가치화 실현**

- 백두대간 자원가치의 극대화
- 고부가가치 물환경
어메니티의 창출
- DMZ·접경지역의 세계화와
문화유산화

자료: 미래 인프라 연구소 - 5대 추진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https://m.blog.naver.com/drryuhk/220968833017>

<그림1> 5대 추진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그림2〉 강원도의 글로벌 미래 청사진



자료: 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 10년, 미래강원 2032)

〈그림3〉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나. 강원도와 연계한 우리 대학의 국제화 적용방안

-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리고 있는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에 발 맞추어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있어 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필요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등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5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접경지역 산업) 등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과 강원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관련 학과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우수 교수 및 연구원과 기업체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5대 관광벨트 (DMZ 생태벨트, 스마트 휴양도시벨트, 고원 웰니스벨트, 글로벌 관광도시벨트, 해양설악벨트) 등을 통하여 체류형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한 강원형 글로벌 관광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조경(산림치유), 체육, 해양과 관광을 연계하여 통합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단지를 신규 조성을 통해 제조산업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노후 산업 단지에 대한 고도화 전략을 통하여 산업단지 국제 경쟁력 향상을 하고 있는 만큼 해외의 산업 인재를 학교에 영입하는 전략이 필요함.

-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팜·푸드테크 산업화·신산림 관광모델 구축, 정원의 산업화 등을 통하여 산업에 대한 융복합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대학의 학과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화된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필요함.

1.2 강릉원주대학교의 글로벌화 전략 현황

가. 대외협력실(국제교류팀) 현황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외접촉창구로서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함.

-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립
-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협정의 체결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유학 정보의 제공, 입·출국 및 입학 수속, 초기정착을 위한 생활 지도·상담
-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 2021년 기준 18개국 42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1세기 대학발전의 중점방향을 '세계속의 대학'으로 설정을 하여 3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대학원생, 학부생,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포함)이 본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 2023년 기준 해외자매대학은 18개국 36개교로 미국이 2개교, 러시아 4개교, 중국 7개교, 일본 5개교, 베트남 3개교, 인도네시아 1개교, 필리핀 1개교, 대만 1개교, 태국 2개교, 몽골 1개교, 터키 1개교, 카자흐스탄 1개교, 우즈베키스탄 1개교, 불가리아 1개교, 리투아니아 1개교, 캄보디아 2개교, 르완다 1개교, 뉴질랜드 1개교가 우리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
-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자매대학들과 학생을 상호 파견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자매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매년 파견대학별로 2명~3명의 교환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수업료는 본교에만 납부하고 자매대학의 협조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학과나 자매대학의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학과 전공 수업을 받거나 언어연수를 받게 되며 귀국 후 파견기간 동안 수학한 성적표를 제출하면 본교에서 학점이 인정이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됨.

해외자매대학

✧ 해외자매대학 (18개국 36개교)

<p>미국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샘휴스턴주립대학 University of Guam 괌대학 	<p>러시아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te University of Saint Petersburg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극동연방대학 The Finance Academy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모스크바재정대학 Khutsk State University 이르쿠츠크주립대학
<p>중국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oning University 요녕대학 Yancheng Normal School 영성사범학교 Yancheng Teacher's University 영성사범학원 Yangshou University 양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하얼빈공업대학 Yancheng Institute of Technology 영성공학원 Heilongjiang August First Land Reclamation University 흑룡강팔일농간대학
<p>일본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ukuji Prefectural University 후쿠이현립대학 Tottori University 토토리대학 Oita University 오이타대학 University of Miyazaki 미야자키대학 Nagasaki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나가사키외국어대학 	<p>베트남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noi University 하노이대학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국립 베트남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 Hanoi International College 하노이국제전문대
<p>인도네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ltetnik Pkai Ganesha Bandung 폴리테크닉 픽시 게네샤 반둥 대학 	<p>필리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 데라살아리네타대학
<p>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g Chuan University 명천대학 	<p>태국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ang Mai University 치앙마이대학 Naresuan University 나레수안대학
<p>몽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ree Univer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후레이대학 	<p>터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Yeditepe University 예디테페대학
<p>카자흐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카자흐스탄국립대학 	<p>우즈베키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ional University Of Uzbekistan Named After Mirzo Ulugbek 미르조울로그베크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
<p>불가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소피아대학 	<p>리투아니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ykolas Romeris University 미콜라스로메리스 대학
<p>캄보디아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 University 라이프대학 Techo Sen Institute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Of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TSI대학 	<p>르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iversity of Rwanda 르완다대학
<p>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오클랜드공과대학 	

※ Updated: 2023. 1. 1.

〈그림4〉 해외자매대학

✦ 교환학생 프로그램(Student Exchanges)

우리 대학은 해외자매대학들과 학생을 상호 파견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자매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파견대학별로 2명-3명의 교환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수업료는 본교에만 납부하고 자매대학의 협조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학과나 자매대학의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학과 전공 수업을 받거나 언어연수를 받게 된다. 귀국 후 파견기간동안 수학한 성적표를 제출하면 본교에서 학점이 인정된다.

수학기간	학점의 취득 및 학점인정
6개월 또는 1년(파견대학별로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학기 6학점 이상 21학점 이하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취득학점은 소속학과 소정의 심의를 거쳐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교과목 이수여 관한 사항은 파견 전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함.

✦ 교환학생 되기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지원자격 확인	희망하는 대학을 정하고 선발시기 확인	필요한 여학생적 준비 (해당대학)	선발공고(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지원서류를 대외협력실(국제교류팀)에 제출
Step 5	Step 6	Step 7	
본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매대학에서 요청하는 입학서류 송부	자매대학으로부터 교환학생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최종 선발 확정	비자 준비 및 항공권예약, 그리고 출국	

※ 아래 사항들은 자매대학측의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향후 신규 교환학생 교류 자매대학들이 추가될 수 있으니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바람.

국가	자매대학	파견기간	수학과정	선발	파견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1년	러시아어 연수	3월	9월
	모스크바재정대학	1년	정규(영어 전용강의)	3월	9월
일본	돗토리대학	1년	정규	3월	10월
	오이타대학	1년	정규	9월	4월
	후쿠이현립대학	1년	정규	9월	4월
	나기사키외국어대학	1년	정규	9월	4월
중국	허베이농업대학	1년	중국어 연수, 정규	9월	3월
	요녕대학	1년	중국어 연수, 정규	9월	3월
	염성공학원	1년	중국어 연수, 정규	3월	9월
	요동학원	1년	중국어 연수, 정규	3월	9월
베트남	하노이대학	1년	베트남어 연수, 정규(영어 전용강의)	3월	9월
태국	차앙마이대학	1년	정규(영어 전용강의)	3월	8월
브루나이	브루나이 다루살람대학	6개월	정규(영어 전용강의)	3월, 9월	1월, 8월

※ 사전공지 없이 파견대학이 추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선발 및 파견기간에 변동될 수 있음.

※ Updated: 2023. 1. 1.

〈그림5〉 교환학생 프로그램

나. 대외협력실(국제교류팀) 글로벌문화탐방 프로그램

관심 분야가 일치하는 학생끼리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탐방제안서를 바탕으로 탐방을 떠나 외국의 문화와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인 체험학습을 통하여 현장지식을 극대화하는 현장 학습프로그램

〈표1〉 글로벌문화탐방 프로그램

파견정보	파견내용	비고
파견권역	- 아시아,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파견기간	- 하계 및 동계방학 중 7일~20일 이내	
팀구성인원	- 1팀당 3명~5명(최소인원 3명)	
선발시기	- 3월~4월(하계방학파견), 9월~10월(동계방학파견)	
본교혜택 및 경비지원	-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1팀당 약 240만원, 아시아: 1팀당 약 150만원	
지원자격	-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 본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 - 외국인학생 참여가능(외국인교환학생 제외) - 외국인학생 1명과 한국인학생 2명 이상으로 1팀 구성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비자발급의 문제로 인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를 알아보고 여행계획을 세워야 함	
심사요강	- 팀별로 제출한 탐방제안서 심사 50%, 면접심사(팀장 참석) 50%	
탐방주제	- 탐방주제 및 목적이 뚜렷하며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서에 높은 점수 부여	
탐방제안서 작성수칙	- 목적에 맞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명확히 작성 - 구체적 일정과 방문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명시 - 출발 전 여행 팀들의 사전모임을 통한 자체 교육일정을 포함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	
선발사항	- 국제교류원 지원으로 해외에 파견된 실적이 없는 팀 우선선발	

- 현재 우리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해외 현장 탐방관련 해외 파견된 실적이 있으면 우선선발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현장체험의 지속성과 심화를 위해서는 실적 상관없이 제대로 된 계획과 향후 커리어와 맞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탐방주제 및 목적 관련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지 학교 방문을 기본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어 성적이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 자매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현장 탐방을 진행을 할 시 우선권을 주며 학교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다. 국제도우미를 통한 해외 문화 이해 프로그램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이 1:1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학생들은 외국인학생들의 한국어학습을 도와줄 뿐 아니라 외국인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



〈그림6〉 국제도우미

- 현재 우리 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해외 현장 탐방관련 해외 파견된 실적이 있으면 우선선발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현장체험의 지속성과 심화를 위해서는 실적 상관없이 제대로 된 계획과 향후 커리어와 맞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함.

라. 우리 대학의 국제화 활용방안

우리대학 학생들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 운영

-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한 시험인 토플 및 GRE(미국 대학원입학자격시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도서관 24시간 운영을 하며 외국 대학원 입학시에 학교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함.

- 해외 유학을 통해 길러진 인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학생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방학기간 또는 졸업시에 우리대학에서 다양한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유학 관련 정보를 우리대학 재학생과 교류하며 해외에 있는 재학생이 속한 대학교와 MOU를 맺을 수 있도록 함.

- 전임교원이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해외에 유학을 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해외 유학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재학생들이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차원에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지원 부서 설치 필요

동아일보 | 사회

[강원]우리 대학 스타/해외명문대학원 입학 제조기 조명석 강릉원주대 교수

입력 2010-02-27 07:00 | 열람 9,828 | 2010-02-27 07:00

‘지방대생 꿈’ 느긋하면 됩니다

“지방대생들이 학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짓은 별다른 기대 없이 유학이었지요.”

조명석 강릉원주대 교수(57·전자공학과·사진)는 2006년 유학연사가 됐다. 이 해에 전자공학과 학생 14명을 미국 명문대학원에 합격 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연봉은 조 교수의 ‘특별 뒤집기 프로젝트’를 집중 조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 유명 대학원인 고시학교 국제 유명 대학원 진학조가 출몰하던 지방대 학생들이 늘어난 성과를 더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가 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생각한 것은 1991년 부임하면서부터. 신성학교(당시 인도계공학교)라는 기대감을 안고 강행에 왔지만 학과의 틀이 잡혀지 않은 탓에 그날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우리는 지방대생’이라는 학생들의 열등감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1996년 ‘미국 명문대학원 진학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러나 주위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당시까진 학생들조차 “절도 안 된다”며 무관심했다. 조 교수가 2007년 마흔 막 ‘강원대’ 이력을 미국 명문대학원을 경험하다 “해는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미한 표정으로 행동하게 했다’는 학생들의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 아마도 내 평생 처음 해보는 웃기지 않는 게기가 아니었던가 싶다. 그런 게그면을 쳐다보는 관측들의 반응은 얼마 나 냉소로 가득 찼던지.’

그는 이때 유학에 뜻을 보인 복학생 1명에게 교육을 집중했다. 6개월가량 토플과 미국 대학원 입학자격시험(GRE) 준비에 매달렸고, 그해 말 미국 명문대학원 10여 곳에 원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워싱턴대의 남가주대 대학원 두 곳에서 입학허가서가 날아 왔다. 강릉대 전자공학과 출신 제1호 미국 명문대학원생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2000년과 2002년에도 1명씩을 합격시켰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주위의 시선은 ‘운이 좋았다’거나 ‘특별한 학생이겠다’는 식이었다. 2003년 3명의 학생이 동시에 합격하고 나서야 주위의 반응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참여했다. 조 교수는 학생들을 33수험생처럼 공부시켰다. 학과 독서실을 마련해 24시간 개방했고, 방학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공부에 집중했다. 2004년에도 3명에 이어 2005년 10명, 2006년엔 무려 14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들 가운데는 정학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7명, 2008년 3명, 2009년 2명으로 합격생이 줄어들었다. 조 교수가 1년간 안식년을 보낸 것이 결정타였다. 조 교수는 이 기간에 책을 쓰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지만 정착 단계였던 프로젝트는 흔들린 셈이다. 그는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해외유학 동아리 S AC(study abroad club)를 만들어 학생들의 마음을 다잡았다. 현재 40여 명의 학생들이 이 동아리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

조 교수에게는 유학 상담을 원하는 전화나 e메일이 자주 온다. 주로 지방대생들과 학부모들이다. 조 교수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제2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실력으로 학업을 뒤집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그림7〉 우리대학 학생들의 해외 유학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대가 아닌 질적 성장 필요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는 3급 이상의 성적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도 수업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수업을 따라 오게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해외 중요 인력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 국제화에 있어 외국인 학생들은 단순히 유치 중심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 국제화 역량을 키워주는 형식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표2〉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교과과정 사례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회 설립	국제 교류 팀 과 AAA가 학사지도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능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목표: 인성, 지성, 영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보험 & 의료 지원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	Customized Academic Advising	베나생(베폼, 나눔, 생명) 센터에서 DMZ 에코 프로젝트 운영
유학생 전용 기숙사 운영	어깨동무 프로그램 운영	제공: 외국인 학생회 활동 지원 포함	사회봉사센터에서 연탄배달 봉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도래 학습 세미나 운영	학부대학 글로벌 세미나 실시	
외국인 전용 장학 트랙 설치	성균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학부대학 Peer Mentoring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 커뮤니티/ 교수-학생 멘토링 운영
외국인 신입생 상담: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학사와 취업상담	글로벌 스위칭 프로그램 운영		TA BANK: 성적 우수 외국인 학생이 TA로 활동하며 전공수업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간담회 운영		영성: 인간학 교육 실행
문화 체험 프로그램	Global Buddy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보충강좌 제공	예비대학 운영		
학사경고자 교육 과정 운영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출처: 쌍방향(In/Out Bound) 국제화를 지향한 대학의 교육실태와 비교과과정에 관한연구 (2012)

- 우리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온 지역을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추후에 우리대학 학생들이 지역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 외국인 학생들의 주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신입생이나 우리 대학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 우리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비교과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대학에서 잘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외국인 학생이 우리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학원 진학 또는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사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련 학과의 협조를 받아서 연관 학생들이 외국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Bottom-up 방식을 통한 개별 학과를 통한 외국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화 증대

- 외국 대학과의 협력을 하는데 있어 학교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도 좋지만 개별 학과를 통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이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업무협약 체결 방식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학과의 교수 역량에 맞게끔 학교에서 지원을 하며 역량이 되지 않는 학과의 경우 필요한 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적인 수준의 국제화된 대학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개별 학과와 연계된 외국인 교수들이 우리대학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안식년에 우리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해외교환학생이 갈 수 있는 파견대학은 러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로 영 어권 국가인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학교들을 추가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과 차원에서 좀 더 세분화된 프로그램 협력이 필요함.

국제학술회의 참석에 따른 대학 해외 홍보

- 국제화 시대에 맞아 지역의 대학이 해외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교수 뿐

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해외 또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대회에 참가를 하여 학교를 알리는 것이 필요함.

- 국내 및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교원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상시에 이에 맞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교내에서 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교원의 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진행시에 다양한 혜택 제공 및 국제공동 연구에 대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 대학원생의 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원의 해외 대학에 대한 강의 및 연구를 지속 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 감면 또는 해외 교원의 국내 대학 강의 및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마.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국제화 협력 방안 사례

강원특별자치도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대학 국제화 협력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EATOF) 연맹은 참여 지방정부간 관광협력 증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정책 및 관광정보 교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민·관 관광분야의 관광인력 양성훈련 및 상호 교류, 기타 상호간 관광협력에 관련된 사항을 주 아젠다로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방정부 중 관광이 중심산업인, 대한민국 강원도, 필리핀 세부주, 중국 길림성,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일본 돗토리현, 몽골 튜브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베트남 광닌주, 캄보디아 씨엠립주가 주축이 되어 참여

- 새로운 사고와 네트워크를 도입하기 위하여, 주최측은 EATOF 의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정부들, 국제기구, 회사들, 학계 그룹 들을 총회에 공식 옵저버로 초청하여 진행

- 2년마다 지방정부 회의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며 각 지방정부의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관광정책 발표, 관광정보 교류, 관광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여 유스 앰버서더를 활용한 미래 글로벌 관광인재 양성

EATOF 유스 앰버서더로 본 글로벌 전략

- EATOF 회원국 간 다양한 관광분야, 국제 관광기관 확대, EATOF 홍보 마케팅을 위해

EATOF 유스(youth) 회원끼리 EATOF 대상 국가를 순차적으로 방문

- EATOF 회원국의 'C'ulture, 'O'rient, 'A'ccommodate, 'S'pecial, 'T'our 의 의미를 가진 사업으로 EATOF 회원국에서 선정한 공정관광, SIT 관광지를 EATOF 유스 회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국 관광을 서로 교류하는 사업

- 공정관광과 SIT 관광을 통해, EATOF 회원국 간 피드백 제공, 실리적 교류 강화. 활동을 통한 EATOF 회원국의 직접적인 노출을 통해 관광 수요 증가. 향후 다양한 관광사업분야에서 활용 가능 회원국 간 유스멤버서터 학교 연계 교류를 통한 지역 관광 홍보 활성화

- EATOF 회원국인 지방정부를 홍보하 위해 EATOF 유스(youth) 회원끼리 EATOF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사업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서로의 지역을 홍보하고 추후에 학교 방문 등으로 지역의 학생과 함께 지역 관광을 홍보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EATOF 회원국 간 학생들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EATOF의 유스들이 지방정부의 문화와 관광을 홍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년에 한 번 열리는 포럼진행시에 이에 대한 결과물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교양교육연구(2012), 쌍방향(In/Out Bound) 국제화를 지향한 대학의 교육실태와 비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일보(2010). 우리 대학 스타/해외명문대학원 입학 제조기 조명석 강릉원주대 교수

제3장

외국인유학생 정책과 강릉원주대학교의 전략

1. 도입
2. 정부의 외국인유학생 정책
3. 강릉원주대학교의 대응: 현황과 전략
4. 평가와 제언

1. 도입

- 내국인 입학자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국내 대학은 학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외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직면한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정부는 글로벌 인재(두뇌)확보를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정책 방안을 동원하여 한국으로의 유학을 유도하고 있으며(김규찬, 2021), 그 결과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였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이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강릉원주대학도 유학생관련 정책을 고도화하여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 단계임.

- 이에 본 장에서는 정부의 주요 외국인유학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대학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현황과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

2 정부의 외국인유학생 정책

2.1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외국인유학생 정책

가. 이민정책에서 외국인유학생 정책의 위상

- 한국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이민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함.

-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차에서 제3까지 15년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옴(법무부, 2008; 2018).

- 유학생을 전문인력이나 투자이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유치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에 대해 매우 통제적이고 소극적 입장을 보여 온 한국의 이민정책의 역사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김규

찬, 2022).

- 한국정부가 유학생 유치에 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서비스의 소비자(학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으로서, 재학 중 및 졸업 후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우수인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임(곽윤경 외, 2021; 김규찬, 2021).

- 이러한 다면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외국인유학생은 한국의 이민레짐에서 매우 선호되는 이주민의 유형으로서, 교육정책 측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을 지탱하는 대안적인 자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며, 노동정책적 측면에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유학생이 준전문 혹은 전문인력으로서 졸업 후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자원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사회통합에 한계가 있는 비전문이주노동자 유입 확대에 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특별히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외국인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이 고등교육을 지탱하는 현상은 이미 주요 유학대상 영미권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나.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상의 외국인유학생 정책 내용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수립된 외국인유학생 관련 정책은 정책목표 1의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의 중점과제 1에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기존의 제1, 2차 기본계획에 담긴 외국인유학생 정책이 우수 유학생의 유치에 초점을 두어온 반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부터는 이들의 유학이후 취·창업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착까지를 고려하는 보다 “미래 지향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법무부, 2018: 25).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출신국을 다변화하며, 지역산업 및 특성화된 학문 분야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움(법무부, 2018: 30).

-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국가와 대학을 확대하는 한편, 박람회 방식을 다변화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함.

-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제고하고 외국대학에 대한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추진하고 있음(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음).

- 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이들의 '유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우수 유학생들의 졸업 후 정착·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주 인프라 강화 내용도 포함되었음.

- 유학생 정주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의 예로, 우수한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취·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직비자(D-10)가 도입되었음.

- 외국인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정착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서 유학과 취·창업의 연계를 확대(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협력)하고,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 선발하고 및 지방대학의 이공계 전문학사 트랙으로 유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유학생 채용박람회도 확대함.

2.2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유학'은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했음.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성공적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결과로 한국은 아시아 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주민이 유입되는 나라라 변모하기 시작함(김규찬, 2022; Kim, 2017).

-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유형의 이주민 유형 중 외국인유학생은 선호되는 이주민 집단으로서,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Study Korea Project,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국내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도입했음. 이것들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치,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 그리고 졸업 후 취업과 정주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추진되고 있음(백성준, 2015).

- 이 중 'Study Korea Project'는 국내대학에 외국인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에 (1)국제수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세계화 촉진 및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자원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2)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하에서 교육수출 경쟁력을 제고, 유학·연수수지 적자 개선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김선태, 2005), 이후 세 번(2008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수정·보완되었음(교육부보도자료, 2023).

- 수립 초기 설정된 Study Korea Project의 정책 영역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 개선, 유학관련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한국 유학 홍보 강화, 효율적 행정 지원체제 구축(김선태, 2005). 최근 수립되는 Study Korea Project는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를 넘어 유입되는 유학생의 질적 수준 제고, 관리 및 정착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와 범위가 변화

되고 있음.

- Study Korea Project의 대표적 성과로서 구축된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은 한국 유학에 대한 홍보(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유학생의 입학·입국, 수학, 졸업, 출국의 전 과정에 걸쳐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비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였음.

- 한국 유학 홍보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 내용은 한국유학박람회(Study in Korea Fair) 개최이며,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외에서 개최해 왔음.

- 특히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의 생활·문화 정보와 특성을 집중 홍보하는 ‘지자체 특화 박람회’는 평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예비 한국 유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별관에 대한 온라인 홍보(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 문화유적, 관광지 등 지역 특색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함.

-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박람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지역 대학과 함께 실시간 유학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번역 채팅 상담(Uni-Talk, 다국어 번역)을 제공하여 한국 유학에 대한 실시간 문답을 제공함(교육부, 2023b).

- 최근 코로나19로 약화되었던 전 세계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성이 회복됨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2023년 새로운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인 ‘Study Korea 3.0(가칭)’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계획 준비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대학,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련의 간담회를 계획중이며, 안전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방안, 유학 후 국내 취업과 정착 등 유학생의 성장 경로, 대학의 유학생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한국교육원과 함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교육부보도자료, 2023b).

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사업

-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유학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자 함.

- IEQAS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인증을 희망하는 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는 제외)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함.

- 심사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며, 제재기간(1년) 이후 별도의 해제 심사없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차년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됨.

- 인증 요건은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을 비롯하여,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등 ‘전략 및 선발’ 영역, 유학생 학업 및 생활지원 등의 ‘유학생 지원’ 영역, 중도탈락율 및 유학생 만족도 관리 등의 ‘유학생 관리 및 성과’ 영역에 걸쳐 총12개의 지표에 달함<표 1>.

- 2023년 3월 기준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중 120개교가 인증을 부여받았고, 일반대학 중 우수인증대학으로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음.

<표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학위과정)

분야		세부지표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평가영역	전략 및 선발	1.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2.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3.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지원	1.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2.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3.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유학생 관리 및 성과	1. 중도탈락률
		2.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3.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재학/공동)
		4.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출처: Study in Korea, https://www.studyinkorea.go.kr/ko/study/certified_intro.do

2.3 ‘글로벌대학 30’ 사업

- 교육부는 2023년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등의 심대한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혁신 정책으로서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수립·추진 중임(교육부, 2023).

- ‘글로벌대학’이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정의됨(법적 근거는 지방대육성법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행·재정 지원)

-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대학 혁신을 이끌 글로벌대학 30개(내외)를 선택하여 2023년부터 5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가, 지역,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함<그림 8>.



출처: 교육부(2023: 4)

<그림8>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 외부적으로는 ①“선택과 집중” 전략 ②범부처·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 ③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④스마트한 선정 및 성과관리를 통해 지원하고, 대학 내부적으로는 ①산학·지역협력의 허브화, ②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③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④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대학 구조와 운영의 혁신을 달성한다는 전략을 제시함(그림 8).

-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주 문제는 이 사업과 여러 측면에서 접점을 가진.

- 입학 자원과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방대학은 존립을 위협받고 지역은 경제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유학생의 유입(입국), 수학, 졸업 후 취업 및 지역 정착은 대학과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임.

- 교육부는 ‘글로벌대학 30’ 계획(안)에서 유학생 규모를 전체 학생의 50% 이상으로 유치하고 이중 언어 수업을 제공하는 일본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 사례를 제시하였음.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특화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어, 전문용어 훈련, 상호문화적응 훈련 등 외국인 유학생-지역특화산업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독일 미텔슈탈트대를 예로 들기도 함.

3 강릉원주대학교의 대응: 현황과 전략

3.1 외국인유학생 현황

- 전국적으로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6,892명으로서 2004년(16,832명)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¹⁾

- 외국인의 국내 유학 증가는 국외로 나가는 한국인 유학생이 학교급(초, 중, 고, 대)과 무관하게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과 대조되는 경향임. 예컨대, 대학의 학위·연수 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 9만1천명에서 2020년 15만4천명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같은 과정으로 국외로 나간 한국인유학생은 21만4천명에서 19만5천명으로 감소하였음(코로나19영향으로 국제유학이 중단되기 전 상황임).

- 강릉원주대학의 지난 5년 간의 외국인학생현황을 보면 총 외국인유학생 수는 2018년 188명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는 28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표4), 최근 증가는 ‘어학연수생’이 견인하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학위과정생은 97명에서 172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학위과정

1)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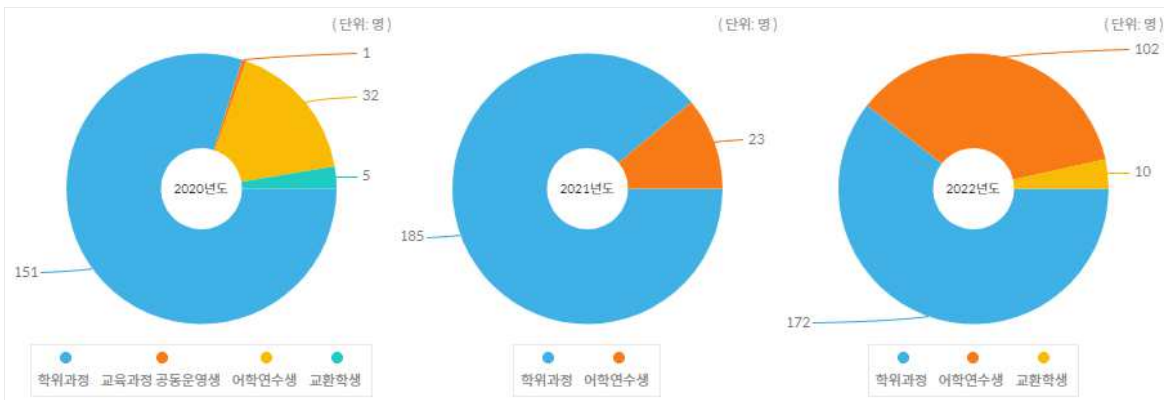
의 경우는 2018년 91명에서 코로나19영향으로 2021년 23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 112명까지 회복되었음.

- 비학위과정 외국인유학생 중 어학연수생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4배 넘게 증가한 반면<그림 9>, 교환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1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표4> 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현황 연도별 추이

공시연도	총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대학)	비학위과정					
			소계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 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2018	188	97	91	2	56	33	0	0
2019	205	115	90	1	64	25	0	0
2020	189	151	38	1	32	5	0	0
2021	208	185	23	0	23	0	0	0
2022	284	172	112	0	102	10	0	0

출처: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lid=0000001>



출처: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lid=0000001>

<그림 9> 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현황 연도별, 유형별 추이

- 한편, 유학생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도탈락율'이라고 볼 수 있음(앞서 언급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를 참조할 것).

- 우리대학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학위과정에만 중도탈락 유학생이 발생했으며, 2021년까지 그 수가 4~6명, 총 유학생 대비 2~3.5%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음. 그러나 2022년 총 탈락생 수가 14명, 6.7% 수준까지 높아졌음.

〈표5〉 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공시연도	외국 재적학생(A)	총 탈락생수(B)	학위과정 (대학)	비학위과정	탈락율(B/A, %)
2018	143	5	5	0	3.5
2019	188	4	4	0	2.1
2020	205	4	4	0	2.0
2021	189	6	6	0	3.2
2022	208	14	14	0	6.7

출처: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lid=0000001>

3.2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전략

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외국인유학생 정책

- 강릉원주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25+’는 ‘중부권 최고의 교육 산학 협력 선도대학’이라는 비전과 중부권 10위 대학 진입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코드 R)” 전략의 세부 과제로 ‘R.1. 지역중심 국립대학가치 제고’, ‘R.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R.3. 글로벌 허브 기능 강화’가 있음²⁾.

- 특별히 ‘R.3. 글로벌 허브 기능 강화’는 대학의 외국인유학생의 유치, 교육, 관리·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

- 대학의 대외협력실 국제교류팀(내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과제 R.3.달성을 위해 ‘국경없는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해외 자매대학교류 및 국제화프로그램 활성화’,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모집 확대’를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 및 지자체 주관 유학박람회 적극 참여, 어학연수 수료생 본교 진학 확대, 교환학생 유치 및 파견 확대를 추진 중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우수대학 인증을 목표로 함.

- ‘해외 자매대학교류 및 국제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 대학과의 MOU 체결 확대,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학생 취업경쟁력 제고를 과제로 설정함. 특별히 국제화프로그램 활성화 과제는 글로벌대학 30사업과 밀접히 연계된 사항임.

-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모집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유학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어학

2) 강릉원주대학교, <https://www.gwnu.ac.kr/kr/7668/subview.do>

〈표6〉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화 과제 체계

구분	과제명	과제 목표	핵심 성과지표
과제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홍보 활동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 • 어학연수 수료생 본교 진학 확대 • 교환학생 유치 및 파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연수생 수 • 학위과정 유학생 수
과제 2	해외 자매대학교류 및 국제화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우수 대학과의 MOU 체결 확대 • 재학생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취업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대학과의 MOU 체결수 • 외국인 유학생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수 • 한국인 학생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과제 3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모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다양한 국가의 유학원과 협력 체결 •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수

출처: 강릉원주대학교 대외협력실 국제교류팀(내부자료)으로부터 저자 취합

주: 대외 유출 및 인용금지

연수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 체험을 강화하고자 함.

나.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통한 전략

-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을 위해 2023년 5월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신청서’에도 외국인유학생 유치확대를 포함한 대학의 국제화역량 강화 관련 내용이 담김.

- 강원1도1국립대(이하 ‘강원대’)는 글로벌 대학도시 비전 구현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1만명’을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표로 제시함<그림10>. 외국인유학생 유치 규모의 대폭 확대는 통합 강원대가 내국인 입학정원을 6,283명에서 5,8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과 매우 대조적임.



출처: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2023)

〈그림10〉 강원1도1국립대 사업 체계

- 강원대는 ‘국제교류혁신센터’를 설치하고 현지에 KNU문화원 운영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입국한 유학생의 일·학습 병행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역정주를 확대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음(그림11). 또한 유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움(그림11).

주요 추진 과제	학사운영	프로그램/인프라			
	학과중심 교육 탈피	무전공 입학 확대, 학생자율설계전공, JA제도 활성화	창업 미네르바스쿨 재학생 10% 교과이수, 캠퍼스 이동식 청색기술 연계 실전 창업교육 (창업실습 3천명, 실제창업 20건)	국제교류 혁신센터	외국인유학생 확대(현지 KNU문화원 운영), 일학습병행제 연계 외국인 지역정주 확대 (외국인 유학생 5천명)
	학생선택권 확대	전공이수제도 혁신, 미래융합가상학과, 마이크로디그리 확대	탑클래스 통합학과 크리터컬매스 기반 캠퍼스 내/간 통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 50위권 진입	원격교육 센터	LRS 공유대학 플랫폼 활용 캠퍼스 간 온라인 부·복수 전공 및 평생교육 콘텐츠 제공 (온라인 학위과정생 5천명)
	기초 학문분야 지원강화	인문, 사회, 문화, 자연과학 기초분야 등 등록금, 생활장학금 지원, 인문학-디지털 융합 교육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산업체 매칭 지역산업 대응 계약학과, 지역 기업 연계 현장실습 학기제	현장체험 오픈센터	혁신/기업도시 연계 문제해결형 교육 및 취업하기제 지원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구축 (표준형 현장실습 500명 등)
		KNU i-square 포털 지역사회 기여도 등 데이터 중심 평가, 성과관리, 상시공개 시스템	집중교육 센터	유학생 한국어 집중 교육, 재학생 물입식 창업/외국어/자격증 교육, 프로젝트 집중학기 (창업사관학교 200명 등)	

출처: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2023)

〈그림11〉 강원1도1국립대 사업 주요 추진과제

- ‘국제교류혁신센터’는 글로벌 강원대의 대학혁신 대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대학은 KNU문화원을 연계하여 온라인 학위/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며, 외국인유학생의 일·학습 병행 및 지역정주 지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됨. 한편 지자체는 ‘지역특화형 비자’³⁾지원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지역정주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됨<그림12>.

대학혁신 대표 프로그램 및 전략		대학의 역할	지자체/산업계 역할
강원1도1국립대	다층적 특성화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지역균형 발전의 해, 멀티캠퍼스 구축 지역특화 산업 연계 학사구조 재구조화 	산업계 JA교원, 계약학과, 대학위원회/캠퍼스위원회
	KNU Expan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대-지역대학-혁신기관 연계 고등교육 체계 구축 생애주기 맞춤 지역혁신 인재양성 평생학습 체계 구축 	재직자 재교육 지원, 학습소외지역 원격교육 시설장비 제공
KNU-창업밸리	청색기술 창업미네르바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색기술 연계 경험중심 창업 실습 교육(재학생10% 이상) 캠퍼스혁신파크 입주기업 연계 실제창업 	지역산업/사회 현안문제 제공, 실제창업 멘토링
	현장체험 오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융합캠퍼스, 기업도시, 혁신도시 연계 취업학기제 	현장교수, 현장실습장 제공
지역혁신 국제도시	국제교류혁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지역정주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 일자리 연계
	원격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NU문화원 연계 글로벌 온라인 학위과정, 한국어 과정 운영 	자매도시 연계 KNU문화원 설립 지원
	집중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RC기반 프로젝트 집중학기, 외국인 한국어·문화 집중교육 	학습운영비 지원, 공동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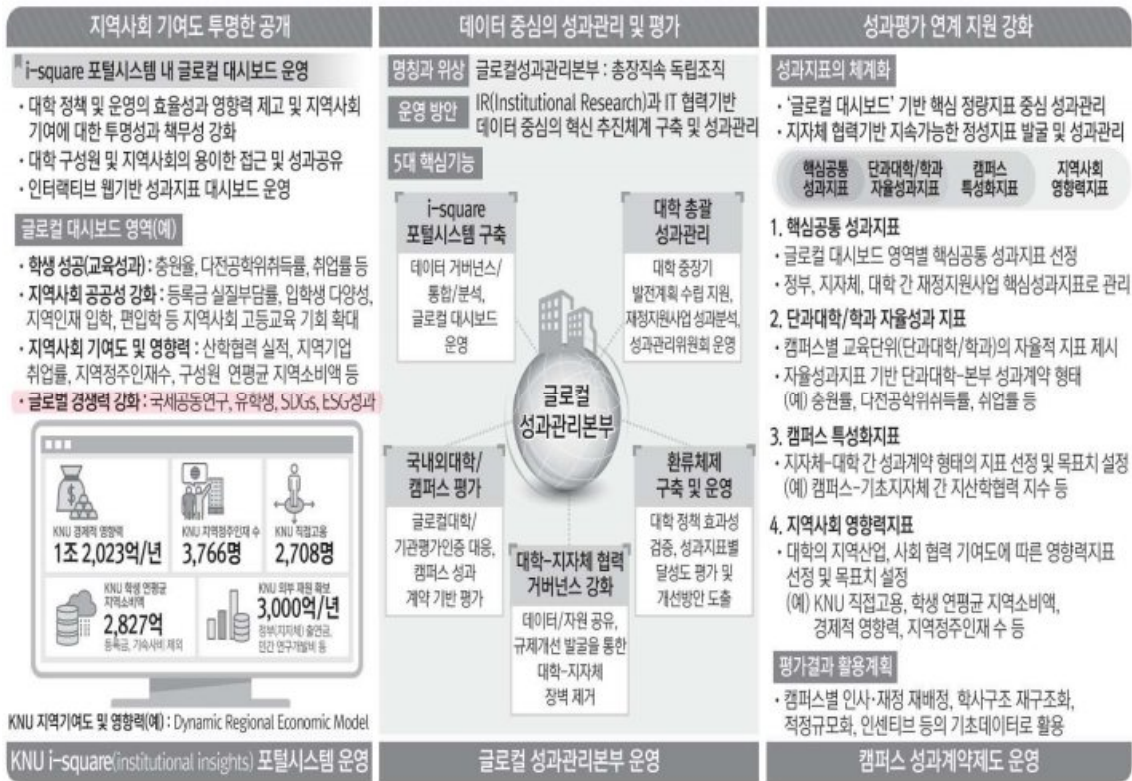
출처: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2023)

<그림12> 강원1도1국립대 대학혁신 대표 프로그램

- 아래 <그림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생’은 국제공동연구, SDGs 및 ESG 성과와 함께 강원대의 ‘글로벌 경쟁력’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임.

-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지역 유입과 정주 확대는 통합 강원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임.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되고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을 참조할 것).



출처: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2023)

〈그림13〉 강원1도1국립대 성과관리시스템

4. 평가와 제언

4.1 평가

- 정부, 지자체 및 대학은 외국인유학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국인유학생의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특별히 지역소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소멸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외국인유학생의 지역대학으로의 유치 및 정주는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내국인학생 감소에 대한 대체 자원 확보차원만이 아니라 대학의 글로벌 위상과 역량, 달리 말해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강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최근 대학 혁신 요구와 함께 강조되고 있음.

- 강원도 소재 강릉원주대학교는 수도권 등 타지역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소극적이었고 유치 규모도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어학연수생 중심으로 유입되어 있어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우리 대학은 2015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돼 인증대학 자격을 유지해온 바 있으며,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치·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전체에서 '인증대학'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⁴⁾

4.2 제언

- 외국인유학생은 학생이자 지역민(소비자, 노동자)으로서 매우 다면적 성격을 지님(곽윤경 외, 2021; 김규찬, 2021). 그러므로 단순히 학생 대체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인구 및 인력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

- 국가 간, 지역 간, 대학 간 외국인유학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강릉원주대학교가 우수한 외국인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굴·입학, 수학 및 생활, 졸업 후 귀환 혹은 정착의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함.

-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편중된 외국인유학생의 출신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본부에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출신 유학생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해외 자매결연 대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하는 전공/학과도 다양화되어야 함. 통합 강원대가 실현될 경우 네 개 캠퍼스별 균형있게 유학생 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유학생 유치가 미미한 캠퍼스는 보다 공격적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외국인유학생이 선호하고 입학 규모가 큰 전공/학과의 경우는 외국인유학생이 원활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 및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본교 졸업 이후 경로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도 요구됨: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이 수학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유형, 강원도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하는 유형, 지역 범주를 넘어 전국 단위로 취업/활동하는 모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학업 및 진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본국으로 바로 귀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대학과 지자체 자원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는 외국인유학생(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 전무함(기존의 가족센터는 성인 외국인을 위한 지원 기능이 제한적임). 따라서 대학이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외국인

4)

<https://www.gwnu.ac.kr/kr/790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3IIMkYxNjE2JTJGMjE5MjE4JTJGYXJ0Y2xWaWV3LmRvJTNG>

들 대상 지원서비스 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음. 대학 차원에서 ‘International Students’(경우에 따라 Men’s or Women’s) Club‘ 같은 자조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도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

- 우리 대학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학생이 본교 졸업 후 본국으로 귀환하여 교수 등 전문직에 종사하며 한국의 지식, 기술, 문화를 역수출하는 소위 ‘사회적 송금’ 기능을 수행하면 유학을 통해 양국이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모형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본교 출신 유학생(졸업생)들을 네트워크하고 졸업 이후에도 본교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가칭 KNU Global Alumni Network 운영 제안).

- 끝으로, 기존에 학업 이외 목적으로 입국하여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동포, 기타 장기체류 외국인 및 그 자녀들의 본교 입학/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외국인유학생 신규 유치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2023). 「강원대학교 혁신기획서 -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신청서」,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75&renew=72775&m=0316&s=moe&m=0316&s=moe>.
- 곽윤경, 이병재, 김기태, 김경환, 김규찬 (2021).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복지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741>
- 교육부 (2023).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시안)」, 교육부, <https://www.moe.go.kr>.
- 교육부 (2023b).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지자체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3. 4. 14).
- 김규찬 (2021). ‘한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두뇌귀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4(3), 5-40.
- 김규찬 (2022). 「이민정책론」. 경기도: 공동체.
- 김선태 (2002).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ssue Paper 2005-03.
- 백성준 (2015).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직업과인력개발」 18(4): 66-79.
- 법무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36942/download.do>.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
- Kim, Gyuchan (2017). ‘Migration Transition in South Korea: Features and Factor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1), 1-32.

제4장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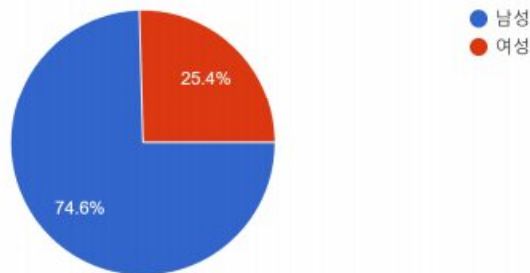
-
1. 설문 목적 및 조사응답 개요
 2. 조사 분석결과

1. 설문 목적 및 조사 응답 개요

- 강릉원주대학교의 국제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는 구글폼을 활용하였음.
- 온라인(<https://forms.gle/YvioHPKrzclVpCWb8>)을 통해 진행되었음
- 조사 기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2주간)
- 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총 59명이며 응답율은 15.9%(총 대상 교원 3716명)

1. 교수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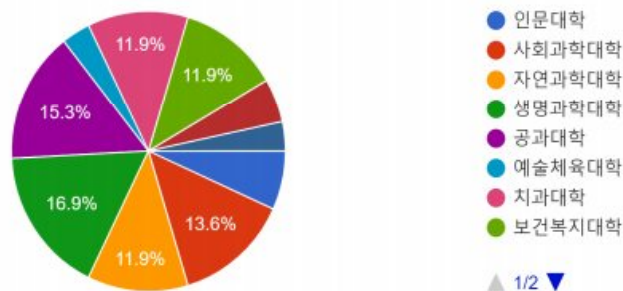
응답 59개



- 성별은 남성 44명(74.6%), 여성 15명(25.4%)으로 남성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됨.

2. 교수님께서 소속하신 곳은?

응답 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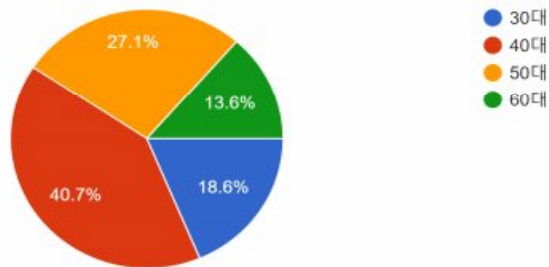
-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은 생명과학대학 10명(16.9%), 공과대학 9명(15.3%), 사회과학대학 8명(13.6%), 자연과학대학 7명(11.9%), 치과대학 7명(11.9%), 보건복지대학 7명(11.9%), 인문대학 4명(6.8%), 과학기술대학 3명(5.1%), 예술체육대학 2명(3.4%), 산학협력단 2명(3.4%) 순

〈표7〉 소속별 성별 응답자 현황

소속 단과대학	남성	여성	총합계
공과대학	9	.	9
과학기술대학	3	.	3
보건복지대학	1	6	7
사회과학대학	8	.	8
산학협력단	2	.	2
생명과학대학	7	3	10
예술체육대학	.	2	2
인문대학	2	2	4
자연과학대학	7	.	7
치과대학	5	2	7
총합계	44	15	59

3. 교수님의 연령대는?

응답 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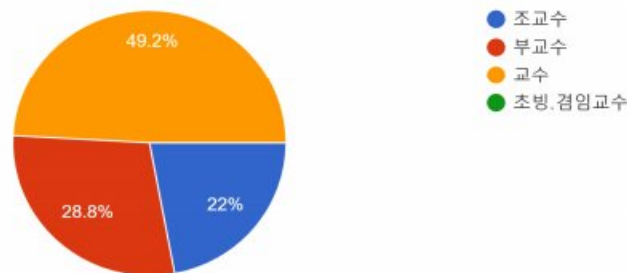
- 연령별로 40대 24명(40.7%), 50대 16명(27.1%), 30대 11명(18.6%), 60대 8명(13.6%) 순으로 응답

〈표8〉 소속별 연령별 응답자 현황

소속 단과대학	30대	40대	50대	60대	총합계
공과대학	1	3	4	1	9
과학기술대학	1	1	1		3
보건복지대학	1	4	2		7
사회과학대학	1	5	1	1	8
산학협력단				2	2
생명과학대학	1	5	3	1	10
예술체육대학			1	1	2
인문대학	2	1	1		4
자연과학대학	2	2	2	1	7
치과대학	2	3	1	1	7
총합계	11	24	16	8	59

4. 교수님의 직급은?

응답 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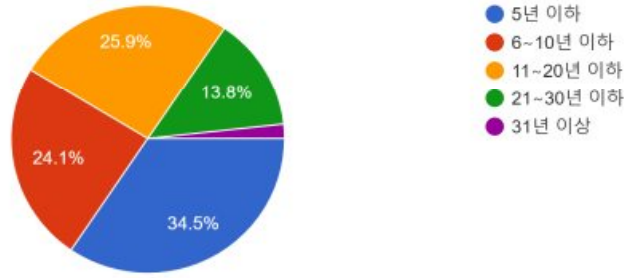
- 직급별로 “교수” 29명(49.2%), “부교수” 17명(28.8%), “조교수” 13명(22%) 등의 순으로 응답.

〈표9〉 소속별 직급별 응답자 현황

소속 단과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합계
공과대학	8		1	9
과학기술대학	1	1	1	3
보건복지대학		5	2	7
사회과학대학	1	5	2	8
산학협력단	2			2
생명과학대학	5	2	3	10
예술체육대학	1	1		2
인문대학	2		2	4
자연과학대학	4	1	2	7
치과대학	5	2		7
총합계	29	17	13	59

5.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에 근무하신 기간은?

응답 58개



- 근무기간별로 5년 이하 20명(34.5%), 11~20년 이하 15명(25.9%), 6~10년 이하 14명(24.1%), 21~30년 이하 8명(13.8%)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

〈표10〉 소속별 근무기간별 응답자 현황

소속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 이상	5년 이하	6~10년 이하	총합계
공과대학	5	3	·	1	·	9
과학기술대학	1	·	·	2	·	3
보건복지대학	·	·	·	5	2	7
사회과학대학	2	·	·	3	3	8
산학협력단	·	·	·	1	1	2
생명과학대학	2	3	·	4	1	10
예술체육대학	·	·	·	·	1	1
인문대학	1	·	·	2	1	4
자연과학대학	1	·	1	2	3	7
치과대학	3	2	·	·	2	7
총합계	15	8	1	20	14	58

2. 조사 분석 결과

2.1. 대학의 국제화

가. 우리 대학의 국제화 목적

- 우리 대학의 국제화 목적으로 <표11>에서와 같이 11개 항목을 선정

[1] 우리 대학에서 국제화를 추진한다면 그 주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으로 선택(설문 14, 제1순위~ 제5순위)

<표11> 우리 대학의 국제화 목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합계
1	다양한문화·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9.0%	7.4%	8.6%	7.4%	12.9%	33
2	해외에서도 취업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기위해	3.4%	8.4%	11.4%	3.7%	6.5%	25
3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도전문직업인재육성을 위해	16.9%	5.3%	5.7%	13.0%	8.1%	36
4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연구자 육성을 위해	7.9%	12.6%	8.6%	7.4%	9.7%	35
5	학생의 어학능력향상을위해	3.4%	8.4%	7.1%	22.2%	4.8%	31
6	교수들의 연구 및 해외의 첨단지식을 제공하기위해	9.0%	7.4%	10.0%	9.3%	4.8%	30
7	대학의 국제적인지도를 향상시키기위해	10.1%	10.5%	15.7%	1.9%	9.7%	37
8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10.1%	9.5%	11.4%	7.4%	4.8%	33
9	대학생의 해외교류경험을 증대시키기위해	5.6%	8.4%	7.1%	11.1%	11.3%	31
10	해외의 우수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발전을 꾀하기위해	13.5%	7.4%	5.7%	9.3%	11.3%	35
11	해외유학생 유치를 통해 경영안정을 꾀하기위해	5.6%	7.4%	4.3%	3.7%	8.1%	22
	빈도합계(100%)	89	95	70	54	62	

-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③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도 전문 직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였으며, 1순위 빈도 중 16.9%를 점함

- 이어 ⑩ **해외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3.5%를 차지함

- ③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목표에 걸맞는

이상적 목표이며, ⑩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력수준 저하 현황에 적응하기 위한 대학의 현실적 목표라 할 수 있음. 이처럼 우리 대학 교수들이 1순위로 꼽은 항목들로 보아 우리 대학 교수들은 이상과 현실을 고르게 선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2순위로는 ⑤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연구자 육성**을 위해서가 12.6%로 꼽혔음
- 3순위에서는 ⑦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5.7%로 나타남

-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 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국제화 목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재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국제인지도가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나. 우리대학 국제화 활동의 정책순위 분석

○ 분석방법

- 우리 대학 교수들에게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활동 항목 21개를 제시하고 중요도(5점)와 실행수준(5점)을 설문하고, 부족도 및 필요도를 계산함

- 대학 국제화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의 항목별 중요도에서 실제 실행 수준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를 차감하면 항목별 부족도라 할 수 있음. 당연히 부족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그만큼 개선의 필요성도 클 수 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수치를 개선의 필요성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필요도를 다음과 같이 중요도와 부족도의 가중합으로 정의함.

$$\text{필요도} = w * \text{부족도} + (1 - w) * \text{중요도}$$

- 필요도 계산에서 가중치 w 는 중요도와 부족도 사이에서 상대적인 값으로 대학 정책 결정시에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값임. 여기서는 가중치를 0.5로 하여 계산한 <표12>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함.

〈표12〉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들에 대한 중요도(설문 15)-실행도(설문 16) 분석

		중요도	실행도	부족도	필요도
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6개월~1년. 어학, 다문화 연수 제외)	3.77	2.44	1.33	1.17
	해외 어학·다문화 연수 프로그램(방학 중 프로그램 등)	3.74	2.55	1.19	1.10
	해외 기업인턴십	3.73	1.93	1.80	1.40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3.29	2.91	0.38	0.69
	해외 탐방 프로그램	3.17	2.56	0.61	0.81
	학생연구 국제학회발표 조성	3.87	2.09	1.77	1.39
	정규수업과 연계한 해외연수 및 지역봉사	3.50	2.05	1.45	1.22
	국내학생과 유학생 교류프로그램 확대	2.42	2.24	0.19	0.59
유학생	유학생 유치를 위한 본부 노력	4.00	2.44	1.56	1.28
	유학생의 한국어, 한국문화연수 프로그램	3.73	2.59	1.14	1.07
	국내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3.58	2.02	1.56	1.28
대학본부	복수대학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협정 가맹	3.70	2.31	1.39	1.19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 복수학위 과정 운영	3.81	1.98	1.83	1.41
	교(직)원의 해외 파견	3.81	2.80	1.01	1.00
	해외 교육경험을 지닌 교원 채용	3.58	2.45	1.12	1.06
	외국인 교원 채용	3.43	2.09	1.34	1.17
연구	전공별 해외연구 네트워크 운용	3.76	1.91	1.86	1.43
학과	전공별 해외 교육 네트워크 지원	3.56	1.95	1.61	1.31
	e-learning을 통한 해외교육프로그램	3.17	2.09	1.08	1.04
	유학생 배려 교육과정 운영	3.38	2.22	1.16	1.08
	유학생 졸업생 네트워크 관리	3.58	2.11	1.48	1.24

○ 중요도 순위

- 중요도 응답 순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본부의 노력(4.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의 해결책의 하나로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학 본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됨.

- 주요 교육 대상자인 재학생의 인적 역량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활동을 고취하는 항목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에서는 **학생연구 국제학회 발표 조성**(3.87)이 가장 높아 전체 항목의 2순위

로 나타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3.77로 전체 21개 항목 중 5순위 정도로 평가됨

- 그밖에 학생들의 역량개발 주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어학연수 3.74(7순위), 해외 기업 인턴십 3.73(8순위)로 평가되었으며, 해외봉사, 해외탐방, 국내 학생과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활동의 중요도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음. 교수들의 중요도 인식이므로 학생들의 인식상 중요도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체 항목들 중 중요도 3.81로 3순위 항목은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복수학위 과정 운영**, 교직원들의 해외파견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앞서 5순위로 나타난 해외대학과의 교환학생프로그램과 함께 대학 본부가 적극적으로 학생 역량과 교원의 국제역량을 고르게 개발 지원해야한다는 교수님들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6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항목은 **전공별 해외연구 네트워크 운용**(3.76)이다. 교수들은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인 교수 자체의 노력이 주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필요도 분석

- 전체 21개 국제화 활동 항목/ 프로그램 중 필요도가 1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15개 항목임. 이들 항목을 순서상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전공별 해외연구 네트워크 운용 1.43
- ②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복수학위 과정 운영 1.41
- ③ 학생들 해외 기업인턴십 1.40,
- ④ 학생연구 국제학회 발표 조성 1.39
- ⑤ 전공별 해외교국네트워크 지원 1.31
- ⑥ 유학생 유치 본부노력 1.28
- ⑥ 유학생의 국내기업 인턴십프로그램 1.28
- ⑧ 유학생 졸업생 네트워크 관리 1.24
- ⑨ 정규수업과 연계한 해외연수 및 지역봉사 1.22
- ⑩ 복수대학과 국제적 네트워크 협정 가맹 1.19
- ⑪ 외국인 교원 채용 1.17
- ⑪ 교환학생 프로그램 1.17
- ⑬ 해외어학연수 1.10
- ⑭ 유학생 배려 교육 과정 운영 1.08
- ⑮ 유학생의 한국문화연수 프로그램 10.7

〈표13 = 설문17〉 대학의 국제화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본부, 학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교원들의 해외 파견 및 교류 지원
3. 한국인의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능력있는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뜻있는 교원들의 해당 외국 연수(해외 파견활용)를 장려하고, 복귀 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유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과 배치
5. 강원대와의 공동 추진이 필요함
6. 국제규모의 우수 학회를 유치하여 교내에서 학회일정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없습니다. 컴퓨터, 음향장비 등 관련 시설이 모두 노후되어 사용하기도 민망합니다.
7. 국제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 국제화는 결국 대학의 국제적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함. 해외저널에 투고해본 경험이 있다면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음.
8.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외국 연구소, 대학, 기업과의 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9. 외국 대학에서 학부 3~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리 대학의 학부 2~3학년 과정으로 편입시키고, 이후 이들을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10. 해외 대학 경험이 있는 교수의 적극 활용, 네트워크 구축, 어학연수 프로그램부터 강화
11. 교환 학생 제도 활성화
12.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및 노력

2.2. 대학과 UN SDGs 연관성

- UN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SDGs 17(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지구 발전을 위한 인정하는 국제적 가치를 담은 중장기 발전목표임. 각국에서 국가 차원 뿐 아니라,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서 자발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려면 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내재화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우리 대학에서도 SDGs 17과 관련하여, 대학과 교육 및 연구 사회봉사 책무를 이와 관련

지워서 대학발전 계획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인식 실태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인식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다음은 UN총회에서 의결한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입니다.

SDGs 17

- 목표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 목표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 목표3.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 목표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 목표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 목표6. 모두를 위한 **물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 목표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 목표8. 지속적·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목표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 목표10. 지역 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 목표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보장한다.
- 목표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 목표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양·바다·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 목표15. **육상생태계를 보호·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방지·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한다.
- 목표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17.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표13=설문18〉 본인 학과 전공분야와 관련된 SDGs 목표가 있다면 그 번호를 열거해주세요. 1~5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빈도합계
목표1 빈곤종식	8.6%	5.7%	2.7%	5.0%	2.9%	16
목표2 기아종식	3.4%	10.0%	4.1%	6.7%	4.4%	19
목표3 건강복지	15.5%	8.6%	9.5%	6.7%	5.9%	30
목표4 교육	13.8%	5.7%	9.5%	8.3%	5.9%	28
목표5 양성평등	1.7%	5.7%	6.8%	6.7%	10.3%	21
목표6 물 및 위생	0.0%	8.6%	4.1%	3.3%	2.9%	13
목표7 에너지	0.0%	4.3%	4.1%	8.3%	2.9%	13
목표8 성장, 일자리	10.3%	7.1%	4.1%	11.7%	5.9%	25
목표9 산업, 혁신	10.3%	8.6%	2.7%	8.3%	7.4%	24
목표10 불평등 완화	3.4%	4.3%	13.5%	6.7%	4.4%	22
목표11 도시	3.4%	5.7%	6.8%	5.0%	4.4%	17
목표12 소비와 생산	3.4%	4.3%	6.8%	3.3%	4.4%	15
목표13 기후행동	8.6%	4.3%	5.4%	1.7%	8.8%	19
목표14 해양생태계	6.9%	4.3%	2.7%	3.3%	7.4%	16
목표15 육상생태계	1.7%	4.3%	5.4%	5.0%	5.9%	15
목표16 평화	5.2%	7.1%	4.1%	8.3%	4.4%	19
목표17 파트너십	3.4%	1.4%	8.1%	1.7%	11.8%	18
빈도합계(100%)	58	70	74	60	68	

- 응답자 중에서 SDGs 17개의 목표와 본인 전공 연관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이 5%이상인 항목은 8개임

- 1, 2순위는 건강복지 15.5%, 교육 13.8%이고, 이어서 성장 및 일자리 10.3%, 산업혁신 10.3%로 나타남

- 빈곤종식 8.6%, 기후행동 8.6%, 해양생태계 6.9%, 평화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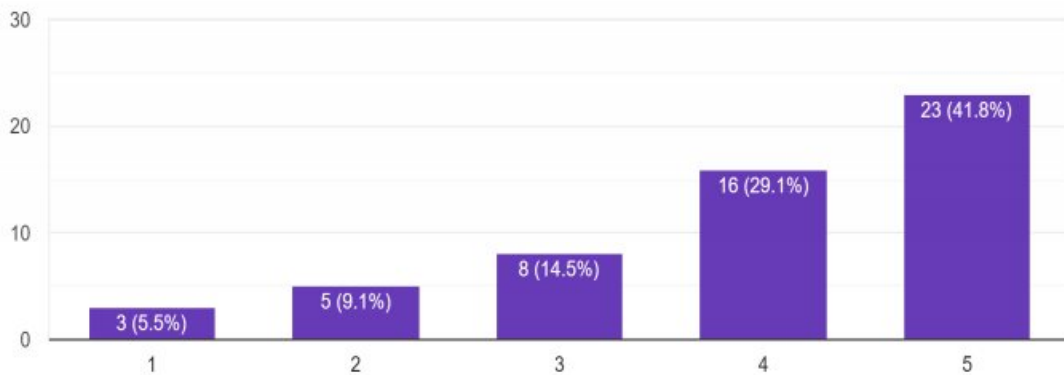
- 2순위로 지적한 항목 중 5% 이상인 항목은 10개며, 1순위에 비중이 낮았던 기아종식 10.0%로 나타났고, 이어 건강복지, 산업 혁신 8.6%로 1순위에서처럼 높은 전공 연관이 있지만, 물과 위생도 8.6%로 높게 나타났고, 평화는 7.1%로 높게 나타남.

〈표14 =설문 19〉 본인 학과 전공 연구와 교육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이나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음				관계가 매우 깊음		
	1	2	3	4	5	총계	관계정도
공과대학	1	2	1	1	3	8	3.38
과학기술대학			1	2		3	3.67
보건복지대학			1	2	4	7	4.43
사회과학대학				3	3	6	4.50
산학협력단			1		1	2	4.00
생명과학대학			1	3	6	10	4.50
예술체육대학		1		1		2	3.00
인문대학			1	1	1	3	4.00
자연과학대학	1	1	1	1	3	7	3.57
치과대학	1	1	1	2	2	7	3.43
총합계	3	5	8	16	23	55	3.93
비율(%)	5.5	9.1	14.5	29.1	41.8		

19. 교수님의 학과 전공 연구와 교육에서 지속가능성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까?

응답 5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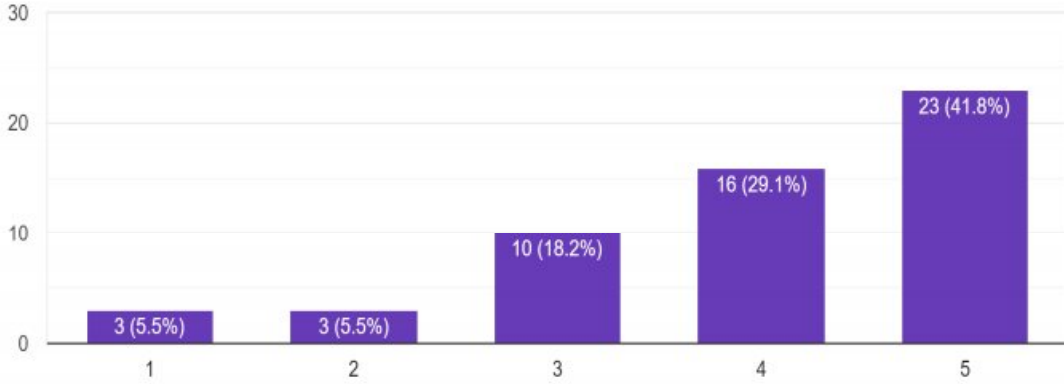
- 응답 교수 중 전공 연구와 교육에 지속가능개념과 연관이 보통인 경우가 14.5%, 관계가 깊음 29.1%, 매우 깊음 41.8%로 나타남

- 보통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가 깊다는 느끼는 응답자 비중은 60.9%(=29.1%+ 41.8%)로 매우 높음

[20] 본인 학과 전공분야의 지속가능 교육의 심화의 필요성(5점)

20. 교수님의 학과 전공분야의 지속가능 교육 심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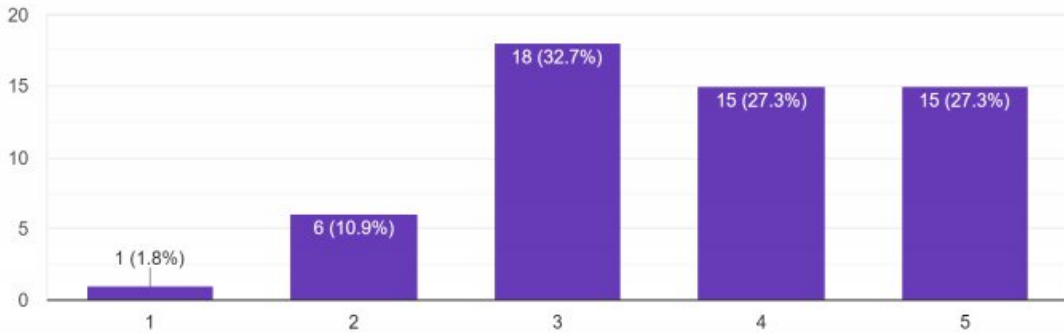
응답 55개



- 전공 교과에 SDGs교육을 심화할 필요가 높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중도 60.9%(=29.1%+41.8%)로 매우 높음

21. 우리 대학의 각 전공 분야는 SDGs 목표와 연관이 있는 학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5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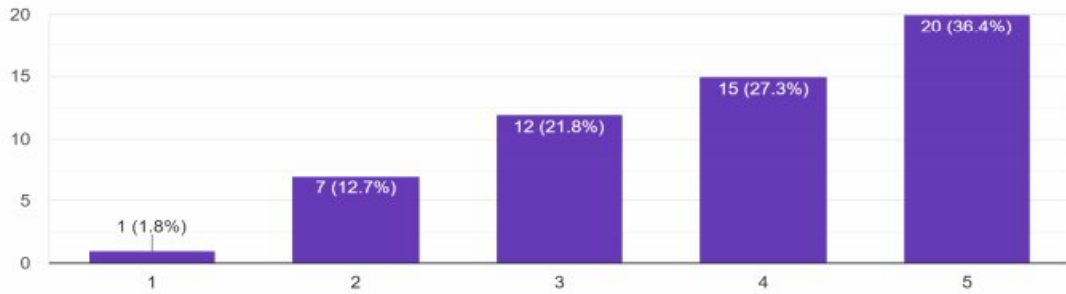
- 본인 전공분야만이 아닌 우리 대학 전체 전공분야에 대하여 우리 교수들은 SDGs 연관이 보통 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32.7%로 가장 높고, 많은편 27.3%, 매우 많은 편 27.3%로 인식하고 있음.

- <설문 19>, <설문 20>을 동시에 볼 경우 응답한 교수들은 본인 전공 분야가 연구와 교육에서 SDGs와 연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설문 21>에서 보듯이 우리 대학 전체에 대하여 인식할 경우에는 연관이 높은 정도가 낮아 지고 있음.

- 이는 학과, 전공간 장벽으로 인해 서로 소통이 부족하여, 타 분야 및 전체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임.

22. 지역사회에서 우리대학의 지속가능 교육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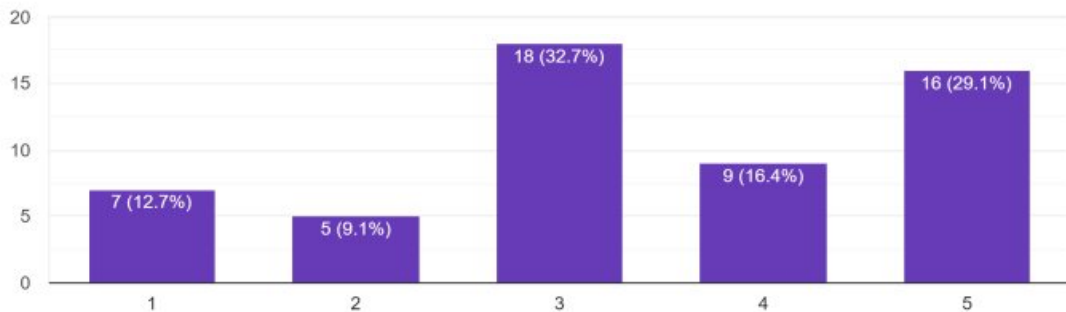
응답 55개



- 우리대학의 교육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63.7%(중요 27.3%+ 매우 중요 36.4%)임.

23. 우리 대학 SDGs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55개



- SDGs 전담기구 필요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았음

<설문 24>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발전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시한 목표 개수가 너무 많아서 설문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의 정확성 등이 떨어지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설문디자인을 응답자가 대답하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학교 역량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 인력적 소비가 너무 과합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실제로 사회로 나가 경쟁을 위해서는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동해안 해양환경을 위하여 많은 학과에서 전문적 공동노력이 필요(과제, 연구 등)
4. 국제연구인력 단기 초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게스트하우스 필요

5. 평생학습, 복지, 강원도 사회구성원에게 있어서 국립대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적 시설적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의 고도화(이것은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지속시키고 발전시켜야함),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및 대응방법 구축, 원전 오염수로부터 한반도 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대한 연구, 사회에 자신있게 배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백두대간을 필두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의 보고, 산림자원, 산림과학에 대한 지속발전과 연구 인프라 구축(씨드볼트, 백두대간 수목원 등 조성), 국립대학교가 반드시 보존해야하는 순수학문에 대한 교육, 연구 인프라 등
6. 10년내 학교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할 상황에서 현재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고려할 만한 여유는 없다고 생각함.
7. 위의 내용에 대한 교수연찬회에서 설명회 필요
8. SDGs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분야라 의견 개진이 어렵습니다.
10. 지역단체와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됨

○ 우리 대학 교수 설문에서 나타난 지속가능성 인식에 대한 해석

- <설문 19>, <설문 20>에서 보는 것처럼 응답 교수 개인들은 본인 전공 분야가 연구와 교육에서 SDGs와 연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설문 21>에서 보듯이 우리 대학 전체에 대하여 인식할 경우에는 연관이 높은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

- 한편 우리 대학의 SDG교육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할 것이라 응답(63.7%) 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 자신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 및 전체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학과, 전공간 장벽으로 인해 서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고, 향후 소통을 통하여 SDGs 목표를 위한 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됨.

제5장

대학의 국제화 방안 및 산학연 협력 사례 I
: 우즈베키스탄 or 분야별 협력 사례
/해양수산분야

-
1. 목적
 2. 개요
 3. 국가개항 및 사업대상지 분석
 4. 추진 여건 분석 및 타당성
 5. 기대효과
 6. 정부 지원과 대학참여의 필요성
 7. 결론 및 제언

1. 목적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양식산업 발전을 통해 식량난과 고용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육류 중심의 소비문화 개선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위한 기술지원과 상호 교류 및 발전이 가능한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2. 개요

2중내륙국가(우즈베키스탄)에 최적화된 스마트 양식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새우 등) 생산 기술을 지원함.

- 해산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육류 중심의 편중된 동물성 단백질 섭취
- 염호인 아랄해 면적 및 수위의 급격한 감소로 1983년을 마지막으로 해산물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물 부족 현상 초래
- 내륙국가에 최적화된 무환수/무방류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해양생물 양식

학생, 산업체, 연구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식 기술 교육과 자연환경보호 및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연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

- 사업 후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해양생물 생산을 위한 고도화된 양식 기술 교육
- 내륙에서 해수를 이용한 양식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한 공동의 이익 실현이 가능한 연구 및 생산 협력 시스템 구축
- 원격스마트시스템 적용을 통해 해외 스마트 양식 기술화 확보
- 우즈베크내 ‘한-우즈베크 스마트양식 센터’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및 청년(연구원(재학생, 졸업생), 장기 현장실습(재학생), 해외취업(졸업생) 등)과 국내 산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

SDGs 해당목표는 아래 표와 같음.

〈표15〉 SDGs 해당목표

국제사회 (SDGs)	SDG 2	기아 종식, 안전하고 영양이 개선된 식량 달성, 지속가능 농업 장려: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 이행함
	SDG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관리 등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군서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함
	SDG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함

사업 배경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배경: 우즈베키스탄 현황

- 급격한 아랄해 수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붕괴 → 해산물 전량 수입 → 국민 건강 및 식문화/일자리/환경오염 등 위기 도래 → 혁신적인 해양생물 생산기술 도입과 정착이 절실
- 내륙국가에서 인공해수를 이용한 지속가능 생물생산 시스템¹⁾을 구축하고, 수산물 수급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량생산²⁾ 기술개발 필요

¹⁾ 환경오염 문제 사전 차단 및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한 생산관리 시스템

²⁾ 사업성과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내수 공급 및 주변 국가에 수출을 하고, 수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효율성을 제고한 공동연구(R&D)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본 사업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최적화된 대량생산 기술 개발 추진

주요 내용:

- 무환수/무방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기술 이전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 * 기후변화, 물 부족, 해수 사용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적용
- 대규모 시설 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에서 소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양식 기술 개발과 전수
 - * 국가 차원의 대규모 생산 시설(국내 수급 및 수출)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 향상을 위한 가구 단위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지원
- 우즈베크내에 ‘한-우즈베크 스마트양식센터’ 설립을 통해 양국의 학생, 산업체, 연구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식 기술 교육과 자연환경보호 및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연구 협력 시스템 구축
 -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우리나라 학생이 참여(연구원(재학생, 졸업생), 장기 현장실습(재학생), 해외 취업(졸업생) 등) → 사업 종료 후 현지 시설 유지, 관리 및 지속성을 위한 현지 전문인력으로 활동

3. 국가개황 및 사업대상지 분석

3.1. 국가개황 및 사업대상지 분석

-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북쪽에 카자흐스탄, 북동쪽에 키르기스스탄, 남동쪽에 타지키스탄,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남서쪽에 투르크메니스탄의 주변 5개 국가와 인접함. 인구 밀도 74.1명/㎢에 약 3,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으며, 수도인 타슈켄트시에 약 300만 명이 밀집하여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발전 중
-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부터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정부는 이제 요소 시장의 부재와 국가의 경제 지배력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 COVID-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가격 자유화와 국내 및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개혁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있는 유럽과 중앙아시아(ECA) 지역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중앙아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16〉 주요 거시경제지표 GDP 성장률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우즈베키스탄	6.1	4.5	5.4	5.8	1.6
독립국가연합(CIS)	1.8	4.0	4.04	4.1	-2.0

- 정부는 2026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중기적으로 성장과 더 빠른 빈곤 감소 외에도 더 강력한 안전망, 더 나은 노동 시장 상황,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보건 및 교육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은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1.6%로 둔화 되었지만 2021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기준 7.4%로 증가

- 산업별로는 농림 어업의 성장률이 4.2%로 가장 큰 침체를 보였으나 산업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상쇄효과를 가져옴. 가계소득과 내수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위기방지 지출과 세금감면 조치의 지속도 경제성장에 기여함.

3.2. 우즈베키스탄 어업 현황

- 1960년대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어업 분야는 주로 아랄해 어획 어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풍부한 어류 자원을 바탕으로 연평균 2만 5천 톤의 수확이 가능하였음. 면화 생산의 증대에 따라 1960년대에 시작된 비효율적인 관개 시스템의 확장과 아무다리야(Amu Darya)강의 유압 구조물(Tuyamuyun 수력 단지와 Tahiatosh 수력발전소) 건설은, 생태계의 점진적인 퇴화와 아랄해의 사막화를 촉진함.

- 이로 인해 아랄해에서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여 198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된 어획량은 53톤에 불과하였으며, 1960년 연간 어획량이 3만~3만5천 톤에 달했던 아랄해의 어업 산업은 현재 완전히 사라짐.

- 그 결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습했던 해안 기후가 건조한 사막성 기후로 변화. 아랄해의 비극은 지속 가능한 자원이용에 대한 관리와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역시 어획량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2017년 5월 1일 대통령령으로 “어업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 양식 산업 발전이 식량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농촌 지역의 안보 및

복지 개선을 추진 중

- 우즈베키스탄 국가 통계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농림수산물의 생산액은 총 2,106.2억숨에 달했고, 이 중 수산물의 생산액은 45.7억숨으로 해당 기간 내 118%의 성장률을 보인 바 있음.

3.3. 수산물 양식 생산 여건 및 현황

- 54,000ha의 인공 저수지와 536,000ha의 천연 저수지에서 담수어종을 대상으로 4,400개의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21년에는 40만t의 어류가 생산되어 2020년 생산량 (28만t)보다 12만t (142%)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수산물(제품) 생산이 17만t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수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2021년 95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으며, 중국·베트남·이란·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복합 사료 생산 공장 설치 및 유충·치어 생산을 위한 부화소 설치 등 총 7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음.

- 집약적 양식을 이용하여 사육한 어류 1t당 100만숨 (USD 97.59 규모)과 모어를 수입하는 비용의 50%, 최대 350만숨 (USD 341.56 규모)를 지원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업 부문에 대해 국가 지원을 일부 제공함.

〈표 117〉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기관 수산분야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야	입학 년도					총계
	'17-'18	'18-'19	'19-'20	'20-'21	'21-'22	
수산	98명	211명	319명	429명	444명	1,501명

공동연구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현황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간 협력)

- 우즈베키스탄 정부-러시아 연방 정부 간 수산업 협동 협약체결
- 우즈베키스탄 어업협회-러시아 연방 어업협회 간 어업 협의각서 체결
- 새로운 유망 어종을 발견하고 번식·적응과 해충·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연구 협력 체결

- 우즈베키스탄 자연, 인공 양식장 민물고기 생산을 위한 기술 공동 개발
- 어류 생산, 가공 유통, 사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 (RAS)에서 자연 및 인공 양식자의 민물고기 생산을 위한 합작 벤처 설립
- 연어과 어류 (송어, 연어 등), 철갑상어 등 다양한 어종의 종묘생산을 위한 합작벤처와 기업 인큐베이터 설립
- 러시아 Astrakhan 수산과학연구소의 우즈베키스탄 지사 설립 제안 진행
- 민물고기 생산을 위한 과학 연구센터
(우즈베키스탄-중국 간 농수산 분야 협력)
- 우즈베키스탄 어업 협회-중국수산협회 간 어업협력에 관한 의정서 체결
- 우즈베키스탄 어업 협회-중국 농촌 산업 외교 협력 협회 간 제안서 교환
(우즈베키스탄-핀란드 간 어업 분야 협력)
- 자연, 인공 양식장 복원 및 매립 지원
- 어업과 양식업 기술 개발 지원
- 직원 및 전문가 대상 교육 진행
- 장비 공급, 설치, 양식장을 위한 사료 기술 개발 등 지원

수원국(해당 기술 관련 정책 환경, 법/제도)

- 2003년 민영화된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어업 관리 시스템은 조정된 훈련이나 과학적인 현장조사, 다양한 자연 호수·강·인공 수역에서 포획하는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어획량에 대한 수집 없이 10년 넘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
- 데이터 확보와 통일된 수산업 정책에 따라 어업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해당 분야 및 관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1일 '어업 개선 대책에 관한 결의안(No. PP2939)'를 시행
- 이를 근거로 12개 대표 지역의 어업 유한회사 (Baliqsanoat LLC)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수산협회(National Fisheries Association, Uzbekbaliksanoat)가 2018년 설립되어 어업 부문의 시장 지향적 관리로의 전환과 어류 양식 및 가공 기술의 개선을 촉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수산협회 주요 역할 및 활동: 다양한 어종 생산을 위해 어업 조직 지원, 자연 및 인공 수역에 유생(幼生) 생산을 위한 새로운 부화장 설립, 생산량 증대 도모, 기존 어류 부화장의 운영을 현대화하고 확장. 자연 및 인공 수역 수산 자원의 합리적 사용 강화 : 토지 할

당을 위한 지방 행정부와의 협력, 현대 양식 기술 도입을 통한 어류 생산량 증대, 케이지 양식을 포함한 새로운 생산 시설 구축, 사료 공급 공장 현대화 및 생산 강화. 어업 관련 국가 정책 및 새로운 프로젝트 시행 개발 과정 참여 : 과학·기술·투자·수출 정책 프로그램 관련 조정, 자연 및 인공 수역에서 어류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참여,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도입, 국제 금융 기관 및 공여국으로부터 기금 유치 등 어업 조직에 대한 국가 지원 참여, 수산물 가격 형성을 위한 최적의 메커니즘 결정 및 수산물 수출량 증대를 위한 제안 및 권장 사항 개발, 가공 제품 등에 대해 국제 규격에 따른 현대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 어류 양식 및 가공 관련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 위한 연구 수행 및 협회 회원 교육

4. 추진 여건 분석 및 타당성

4.1. 국내 지원역량 및 구현 가능성 분석

- 수요 기술은 공동연구를 통한 흰다리 새우 양식 기술 현지화 및 고도화 지원과 관련된 기술로, 세계적으로 연안 양식장 배출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친환경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 내륙에서도 양식이 가능하고 외부로부터의 질병 유·출입 차단이 용이한 첨단 양식 시스템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흰다리 새우 양식 기술 구현에 필요한 전기산화 정수처리 기술, 흰다리 새우 섭식 및 성장 연구 기술, 양식장 오폐수처리과정에 필요한 전해 이온 알칼리 수 제조 기술 등에 대한 연구경험 및 핵심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관련하여, 양식 설비, 기본 하드웨어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먹이 공급 장치, 환경제어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양식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충분히 가능함

-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검증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 사업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후 환경과 여건에 최적화된 양식 시스템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대량생산을 위한 사업화 추진 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술 인프라 구축 여부 분석

- 수원기관인 FSRI는 우즈베키스탄 과학 기술 개발협력 역량 및 보급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유기적 협력이 가능함.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수산협회 소속으로 이미 대지 270ha 규모의 연구소 부지 내에 양식 수조

및 전문 전담 연구인력, 전기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이 완비되어 있음.

- 다만, 현지의 양식 기술이 미흡하여 생산성이 낮은 실외 담수어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해양생물 양식 경험과 교육이 부재하고 치하 (새끼새우) 실내 양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난방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한국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전된 양식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전수 및 현지화·고도화된 대량생산 새우 양식 기술 개발이 가능하며, 기술 개발·보급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산업화 정책 수립, 생태계를 조성하여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음.

사업 대상지 및 이해관계자 분석

- (기본 인프라) 수원기관(FSRI)이 위치한 사업대상지는 자체로 조성중인 양식 연구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전기 및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정전의 경우에도 예비 발전기를 이용하여 시설 운용이 가능함. 파일럿 연구를 위한 별도 양식 수조와 실험실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바 사업 수행에 용이함.

- (사업 이해관계자간 업무효율성) 수원기관(FSRI)의 연구소장은 한국에서 새우 양식 분야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양식 및 사료분야 연구원 등 전담인력 5~6명 이상이 투입될 예정임. 우즈베키스탄 수산협회 및 타슈켄트 농업대학이 위치한 타슈켄트 시와는 차량으로 1시간 내외 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양식 기술 관련 현안 논의, 관련 인력 실습 등에 용이함. 향후 사업 이해관계자 간 공동 연구 주제 개발 및 공동 연구 등의 업무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사업관리 및 성과 달성) 타슈켄트시-사업대상지(양기울 지구)간 거리는 약 40km로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함. 수원기관 및 관련 부처, 협력기관과 업무협약, 사업 관리 및 운영의 측면에서 사업 대상지로서 타당함.

4.2. 기술적 타당성

- 수산양식기술 관련 특허동향 분석 결과 한국은 최근 20년간 전체 유효 특허건수의 40%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 가장 높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무방류·무환수 수처리 기술이 가장 많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륙 양식장 설비 기술, 새우 사료 제조 기술 순으로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로 연구기관의 주도로 출원된 것이 특징이며, 개인 출원인도 다수 존재. 관련 기관, 업체 등이 출원 및 발표한 다양한 기술을 특허정보, 논문, 보고서 등의 형태로 확인 가능. 특허청이

한국의 공개 특허 및 등록된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 대상 적정기술 개발·보급 및 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적합한 새우 양식 기술 개발·보급 및 현지화·고도화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양식업 생산성 증대, 소득 증대 등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됨.

4.3. 전략적/정책적 타당성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2026 국가 중장기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 및 다양한 산업에 대한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동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수산업 분야에 새로운 양식 기술을 보급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분야 개척 및 일자리 창출, 수산물 생산량 증대 기여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전략에 부합함.

- 특히 수산업 분야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수산업 운영시스템 개선방안(2017.01.05., PD-2939) 등 6개의 대통령령과 «수산업 발전기금 조성 및 수렵·어업에 대한 청정수역 임대 방안» (2017.07.08., No593) 등 6개의 관련 내각 결의안을 발표. 우즈베키스탄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수산물 자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국가 정책 및 식량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4.4. 경제적 타당성

- 공동연구를 통해 현지 파일럿 양식장 및 고도화 기술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단계별 (초급자 및 상급자 과정) 교육 등의 지원에 따라 해당 인력에 대한 새우 양식 기술 역량 강화 및 기술 보급 활동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현지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화 전략 수립과 아울러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시범 수행 및 성공사례 확인에 따른 현지 사업화가 가능함.

- 양식 기술과 관련하여 현지에서는 주로 단위당 생산성이 낮은 담수 어종에 대해 실외 양식을 진행하고 있기에 생산규모가 낮음. 특히 해산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새우(갑각류)의 경우 '20년 대비 '21년 수입량이 약 400% 이상 급증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에, 기술보급을 통하여 향후 현지에서 자급 생산·유통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혜택이 예상됨(예시: 사업후보지 기준 연간 약 240,000kg, 매출액 약 USD 500만불, 투자금 약 3년 후 회수 예상).

4.5. 사업실행 측면 타당성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점협력국이자 정부 신북방정책 주요국 중 하나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해당. 현지 식량 안보 및 식습관 개선, 경제발전 및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양식 관련 기술 개발 수요가 높고, 수원기관의 연구 관련 시설, 전담인력, 연구 및 운영역량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수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형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수원기관 및 정부부처, 협력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 유지 및 협의를 시행해왔으며, 본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우즈베키스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흰다리새우 양식 기술 관련 현지 파일럿 양식장 구축 및 운영, 고도화 기술 개발 및 현지 적용 등을 수행할 계획임. 그에 따라 수원기관은 자체 운영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 우즈베키스탄 정부, 유관 부처, 수원기관의 양식 관련 기술 관심에 따른 대통령령(수산업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PD-2939 2017.01.05.) 등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양식 기술 개발 추진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우즈베키스탄 스마트 양식산업 발전에 따라, 고용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육류중심의 소비문화개선 및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식량 안보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며, 유엔 또한 식량 생산 및 유통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의 위상 제고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식량안보, 소득증대와 국민 보건 등 삶의 질 향상

공동 이익 실현과 스마트 양식산업의 지속성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세대와 관련 산업분야 해외진출 기회 확대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 분야 세계 5위 국가(IP5)로서,「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통해 개도국 지식재산(IP) 인적 역량 강화로 선진국-개도국 IP 격차 해소에 기여 가능

6. 정부 지원과 대학참여의 필요성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 바다가 없는 이중 내륙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담수 양식에 적합한 강과 호수, 하천 등 내륙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90년대 이후 아랄해 사막화³⁾에 따른 집단화 양식장의 붕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관심 부족, 수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부족 및 연구 시설의 한계로 인해 자원 잠재력에 비해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낮은 편

³⁾ 현재 과거 수산물(해양)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현재 생산량은 '0'

- 수산업 관련 개발 정책과 계획의 부재로 무분별한 어획과 수질의 오염이 이어져왔으며 대부분의 수산 자원, 특히 해산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우즈베키스탄은 농·축산업 생산량이 풍부하고 곡물과 관련된 성공적인 식량 자급 정책으로 식량 안보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해당하지만,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에 따르면 균형 잡힌 영양 및 사회 경제적 소득 집단 간 영양 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함.

-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어업이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에 정부는 '어업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을 시행하여 양식 산업에 대한 투자²⁾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의 안보 및 복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사항〉

1.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해양이 없는 나라로 수입 냉동 새우를 생산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새우양식장 구축

2. 물부족 국가에 무방류 기술을 통해 물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선진화 기술을 전수

3. 스마트 팜을 통해 타쉬켄트(수도)의 양식장을 한국에서 ICT를 활용하여 조정, 관리 가능하도록 먹이, 습도, 온도, 일조량 등 양식장 설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전수

4.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양국의 전문가와 학생들을 같이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 실습, 사례를 통한 경험을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프로젝트나 사업을 추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5. 추후 수산양식 헷셉(HACCP) 제도적 수립, 개선을 전수하여 원재료와 제조, 가공, 보존, 유

통 등 건강한 식품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조성

6. 새우뿐 아니라 다른 어종, 관련 사업과의 연계,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의 지속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한국 스마트양식센터”를 설립, 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속성을 추구

7. 프로젝트 후 SPC를 설립하여 프로젝트의 안정된 지속성과 유지, 사업의 보급을 위해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도록 한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민영화 전략과 일맥상통하며 적극 권장

-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지원이 증가하여 양식 관련 기술 역량 발전과 어류 생산량의 증가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내 양식은 담수 어종에 국한 되어있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실외(노지) 양식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수산 양식 분야의 학술적 토대가 미약하며 양식 산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실정임.

- 육류 위주의 식습관 개선과 새로운 단백질 식량자원 공급이 필요한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생산성이 높은 고밀도 양식이 가능하고 양식장 시설 설비비용이 적게 들어 생산 비용이 저렴하며 생산 주기가 짧은 흰다리새우 양식 관련 기술을 보급하여 소득증대와 식량안보, 국민 보건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

- 또한 대부분의 양식 사업자가 높은 염분, 황화수소, 암모니아, 산업 폐수 등을 포함한 저수지 물이나 석회질 성분이 높은 하천수를 별도의 정 과정 없이 자연 상태에서 침전 시킨 후 사용하기에 산소 결핍 등의 문제를 일으켜 어류의 성장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할 수 있으며 사용이 끝난 사육수 역시 별도의 정수 과정 없이 하천 또는 지표면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2차적인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또한 높음.

-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을 활용한 양식 방법 적용을 위해 물을 갈거나 방류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륙에서도 쉽게 양식이 가능한 흰다리새우 양식 기술을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자급 가능한 기술 제공 가능

대학이 가진 기술, 전문인력(교원, 학생) 활용

- 대학이 가진 우수한 기술 및 연구인력(교원,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 및 기업 역시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수요 요청에 화답하고 개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 호혜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 정부의 유사사업〉

1.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해양생물 자원 관련 유사사업은 없음.

-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정부(해양수산부)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중북부 지역인 와글라주 사하라사막에 대규모 새우양식 센터건설을 시작, 연구동과 실내 사육동 및 야외 양식장까지 대규모 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음

- 2019년 타슈켄트에 섬유산업과 농업부문의 기술협력으로 한-우즈벡 섬유 테크노파크를 개소하였음.

- 2016년부터 ODA 사업을 통해 농기계 장비 제공, 교육훈련을 지원한바 2019년 6월 '한-우즈벡 농기계 R&D 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농업기술협력 시스템을 구축함. 향후 이 센터를 통한 기술협력을 토대로 양국 간 농업 합작 생산과 신제품 개발 등 농업협력이 긴밀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사업에서도 '한-우즈벡 해양수산 스마트 양식 센터'를 개소하여 지속적인 기술전수와 전문인력 양성, 교류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자 함

7. 결론 및 제언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없는 이중 내륙국가이다. 세계에서 4번째로 컸던 큰 호수인 아랄해가 염호로서 해양 수산자원이 내륙에 있었으나 과도한 물 사용과 개발로 말라버려 환경,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 이로 인해 염분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바람을 타고 주변 500만ha가 광대한 모래밭이 되고 강 주변 숲의 90%가 감소함. 또한 아무다라야강 삼각주로 유입되는 수백개의 작은 강들도 말라버렸다. 결국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피해로 돌아옴.

생태계 변화는 연간 해양수산 3만톤에 이르는 어획량이 0가 되어 어촌마을은 붕괴 되었고 경작이 어려워지면서 10만명이 실업자로 내몰림. 또한 인근 주민들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쳐 기형아 출산이 늘어났다. 아랄해의 비극은 우즈베키스탄에 물 부족으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인근 국가간 물 부족 쟁점을 가져오고 있음. UN에서도 특별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려를 표명하며 전 세계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이 극도의 관심 지역인 우즈베키스탄에 새우양식 프로젝트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본 프로젝트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이유는 “희망”이라는 메시지에 있음.

프로젝트의 특징 및 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해양이 없는 나라로 수입 냉동 새우를 생산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새우양식장 구축, 둘째, 물부족 국가에

무방류 기술을 통해 물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선진화 기술을 전수할 수 있으며 셋째, 스마트 팜을 통해 타쉬켄트(수도)의 양식장을 한국에서 ICT를 활용하여 조정, 관리 가능하도록 먹이, 습도, 온도, 일조량 등 양식장 설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며 넷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양국의 전문가와 학생들을 같이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 실습, 사례를 통한 경험을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프로젝트나 사업을 추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다섯째, 추후 수산양식 핫셱(HACCP) 제도적 수립, 개선을 전수하여 원재료와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건강한 식품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함. 여섯째, 새우뿐 아니라 다른 어종, 관련 사업과의 연계,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의 지속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한국 양식 지원센터”를 설립, 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속성을 추구한다. 일곱 번째, 프로젝트 후 SPC를 설립하여 프로젝트의 안정된 지속성과 유지, 사업의 보급을 위해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도록 함.

따라서 대학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우즈베키스탄 새우양식장 구축 프로젝트는 해양수산 컨설팅을 통해 양식장을 건립, 관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며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보급, 우즈베키스탄 해양수산 활성화와 기후환경극복 의지를 심어 주며 식량안보 확보 및 스마트 팜 신기술 보급, 확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환경개선, 그리고 해양수산물 신성장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

제6장

대학의 국제화 방안 및 산학연 협력 사례 II
: 베트남 협력

-
1. 목적
 2. 베트남과 협력의 배경 및 필요성
 3. 우리 대학의 베트남 협력 사례
 4. 결론 및 제언

1. 목적

가속화되는 세계화 환경속에서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리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화협력 프로그램 기획하여 운영함. 다각적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하고자 함.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베트남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베트남과 협력의 배경 및 필요성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하여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연평균 7%의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 하위 중소득국 그룹에 진입하였고 현대화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사회경제개발전략(2011~2020)과 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15)을 추진하였으며, 개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실행하였음.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장을 이루었음. 2014년 이후 한국이 베트남의 가장 큰 직접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수출상대국으로 대외경제 여건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 교류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베트남은 한국과의 교육·과학기술 협력기반 강화를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음. 한국과 베트남은 정부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교육협력을 심화해왔으며, 그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중으로 베트남 유학생이 두 번째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그림14〉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



〈그림15〉 베트남의 현황

2005년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약정이 체결되고 두 국가의 교육협력이 국가적으로 장려되기 시작하였음. 양국은 약정을 통하여 모든 분야의 교육교류를 장려하는 것으로 기술·직업·고등교육기관 간 공동연구, 교직원·학생의 상호교류, 커리큘럼 및 교과서 정보 교환 등에 합의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 나갔음.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협력과 인적교류의 확대에 양국 사이의 접근성은 높아지게 되었음. 베트남 정부는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회경제개발전략’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훈련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베트남은 산업현장 기술에 대한 선진화를 필요한 기능인력 보유의 욕구가 절실하며, 국내 대학은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앞세워 베트남 교류사업에 힘쓰고 있음.

국내 대학의 입학자원 급감의 현실에서 그를 대체할 중요 인적자원으로 유학생의 유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실질적 유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베트남 유학생의 유치는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됨.

우리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베트남과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공동연구, 산학연공동과제의 지속적인 쌍방향(아웃바운드(In/Out Bound)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3. 우리대학의 베트남 협력 사례

우리대학은 베트남과 아웃바운드 협력, 인바운드 협력, 그리고 쌍방향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3.1. 아웃바운드 협력 사례

가. 해외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외현장실습 운영

-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73년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산업 현장실습 이수를 법제화하였음.

-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과 기업 사이의 산학협력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함.

- 현장실습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배양하는 활동임.

-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생은 기업체 현장의 업무 및 인간관계 등 현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으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음.

- 해외현장실습은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실습을 통하여 현장실습이 해외에서 실무 역량을 쌓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언어능력 및 전공실무능력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현장실습의 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도모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현장실습은 주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해외현장실습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이루어는 것이 통상적임.



〈그림16〉 현장실습의 이점

〈표18〉 우리대학의 글로벌 현장실습 사례

교과목명	시기	국가	실습기관	인원	주요성과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9 하계	베트남	Vina GIO	2명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9 동계	베트남	Vina GIO	1명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9 동계	베트남	Vina GIO	4명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
		미국	ICN Group, SRTEC	12명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8 하계	베트남	Vina GIO	1명	2018년 하계 현장실습 종료 후 1명이 실습기업으로 취업
		미국	ICN Group	2명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8 1학기	미국	후룬베이얼FATA한국성 백화점 유한공사	2명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8 동계	미국	ICN Group	1명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7 하계	미국	(주)백패커스 그룹	9명	비즈니스플랫폼을 활용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취업1명)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7 동계	베트남	JNTC Vina 외 1개사	4명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
해외현장 실습계절제 (4주)	2016 동계	베트남	Vina GIO 외 5개사	10명	2016년 동계 현장실습 종료 후 3명이 실습기업으로 취업 (2017년 상반기, 베트남)

* 코로나 이전 해외에서 현장실습 참여 사례

- 해외현장실습은 다문화적인 직업 환경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을 익히게 됨. 또한 해외의 새로운 문화를 접함으로써 전공관련 업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언어와 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됨.

- 우리대학의 초기 해외현장실습은 방학기간에 학생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4주~8주 기간의 실습이 전개되었음

- 이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네트워크와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해외현장실습 기관들의 수요를 반영한 12주 학생참여가 가능한 장기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인 “해외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을 기획 신설하였음.

- <표4-1-1>은 우리 대학의 현장실습 진행 사례를 보여줌. 2016년 동계 현장실습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미국과 베트남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해외취업역량을 강화하였음.

- 특히 베트남에서 진행된 해외현장실습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계와 하계에 모두 진행되었으며, 해외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으로 취업이 연계되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음.

- 베트남 현장실습의 대표적인 협력 기관은 (주)비나지오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과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에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 베트남 (주)비나지오와의 협력으로 <그림17>에서처럼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해외현장실습 기회가 마련되었음.

- (주)비나지오는 글로벌 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꾸준히 해외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제통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영어영문학과, 회계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각의 전공에서 필요한 글로벌 실무 능력을 향상시켰음.

- 베트남 해외현장실습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그림18>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2016년 동계 현장실습에서는 국제통상학과 1명 그리고 2018년 하계 현장실습에서는 패션디자인학과 1명이 베트남 현지 취업이라는 결실을 이루었음.

- 더불어 해외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대학 영어영문학과 1명이 2017년 (주)비나지오 베트남 현지에 취업되어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발전을 이루는 좋은 성과도 이루었음.

- 해외현장실습 후 취업연계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진행되었던 해외현장실습은 글로벌 페데믹인 코로나의 악재에 직면하면서 중단되었고 아직까지도 해외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내에 본사를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 자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벽진컴퍼니와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진행하여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해외현장실습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음.

글로벌 현장 실습

<p>01 2016년 동계 : 베트남(VINA GIO) VINA GIO – 김기돈(국제통상학과), 최지원(패션디자인학과)</p>	<p>06 2021년 동계 : 국내(벽진컴퍼니본사) 벽진컴퍼니- 한기호(패션디자인학과)</p>
<p>02 2018년 하계 : 베트남(VINA GIO) VINA GIO – 안진희(패션디자인학과)</p>	<p>07 2022년 하계 : 국내(벽진컴퍼니본사) 벽진컴퍼니- 서현서(패션디자인학과)</p>
<p>03 2018년 동계 : 베트남(VINA GIO) VINA GIO – 엄미정(경제학과), 박준성(국제토상학과) 주소현(무역학과), 윤중후(영어영문학과)</p>	<p>08 2022년 동계 : 국내(벽진컴퍼니본사) 벽진컴퍼니- 김예림(패션디자인학과)</p>
<p>04 2019년 하계 : 베트남(VINA GIO) VINA GIO – 정명성(패션디자인학과)</p>	<p>09 2023년 하계 : 국내(벽진컴퍼니본사) 벽진컴퍼니- 김가은(패션디자인학과)</p>
<p>05 2019년 동계 : 베트남(VINA GIO) VINA GIO – 황혜선(영어영문학과), 이민영(회계학과)</p>	

〈그림17〉 우리대학의 베트남 글로벌 기업과의 지속적 현장실습 진행 사례

- 코로나 펜데믹의 상황아래에서 (주)벽진컴퍼니 본사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베트남 현지와의 온라인 협업을 통하여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을 대체하는 시도를 하였음.

- 그 결과 〈그림18〉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2021년 동계현장실습부터 2023년 하계 현장실습까지 지속적으로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주)벽진컴퍼니는 글로벌 의류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패션디자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여 해외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주)벽진컴퍼니와의 협력을 통하여 〈그림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장실습 후 취업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주)벽진컴퍼니와의 협력은 나아가 현장실습 후 취업 이외에도 우리대학의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생 1명이 2022년 취업하는 성과도 이루었음.

- 2016년 이후 베트남 글로벌 기업과의 현장실습은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까지도 취업하는 결과로부터 앞으로 베트남 기업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다른 기관들이 참여를 확대한다면, 우리대학의 국제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베트남 글로벌 산학협력 사례 : 글로벌 취업 연계



〈그림18〉 우리대학의 베트남 글로벌 기업과의 현장실습 진행후 취업 연계 사항

나. 베트남 산학협력 연계체계 구축

-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국제화 취·창업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고취하고 분위기 확산시키기 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하였음.

- 특히 베트남 국제화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베문화교류센터와 JNTC Vina의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현장실습과 글로벌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 한베문화교류센터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을 통하여 글로벌 산학협력겸임교수 임용 등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현장실습 활성화 및 가족회사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 우리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베트남과의 산학협력 체결을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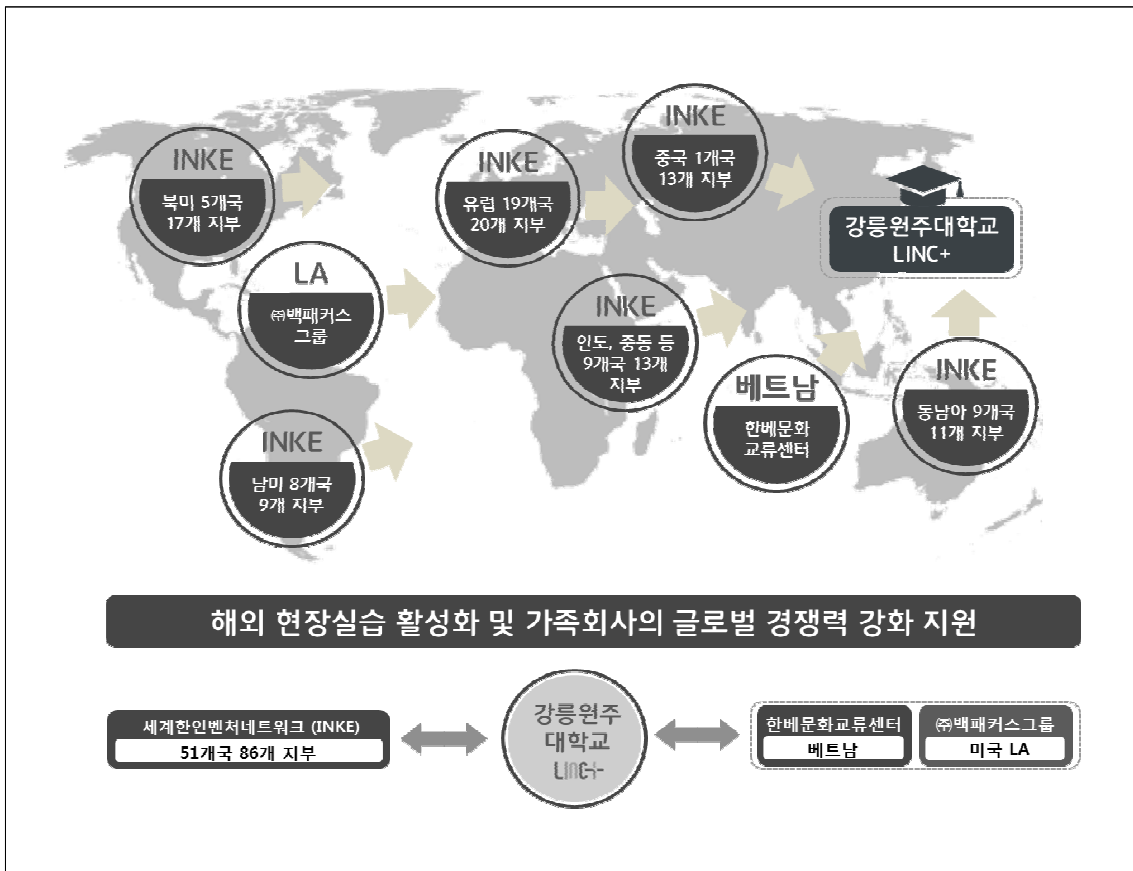
- INKE(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CEO특강, 가족회사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현장실습 연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한베문화교류센터의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학과특강, 해외현장실습 연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베트남 현지 기업인 JNTC Vina와 VINA GIO과 협업을 통하여 LINC프로그램 및 해외현장실습을 진행하였음.

〈표19〉 우리대학의 베트남 산학연계 네트워크 구축실적

구분	기관(기업)	국가	산학협력 협약체결	협력 프로그램	
기관	INKE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전세계 48개국 80지부	2017-03	글로벌CEO특강 가족회사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현장실습	2017-09 2017-11 2018-03
기관	한베 문화교류센터	베트남	2017-08	다문화학과특강 해외현장실습	2017-09 2017-12
기업	JNTC Vina	베트남	2017-12	해외현장실습	2017-12
	Vina GIO	베트남	2016-12	LINC프로그램 2016동계해외현장실습	2016-12



〈그림19〉 우리대학 국제화 산학협력 연계체계

다. 베트남 국제화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 우리대학의 베트남 국제화 협력 네트워크는 관·산·학이 연계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음.
- 베트남의 산업 분야 가운데 패션·섬유 관련 산업은 현재 베트남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산업이며, 미래에도 베트남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의 베트남 주력 산업과 발전 과정을 고려하여 우리대학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베트남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대학의 국제화를 실천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산·학교류의 실천으로 국내·외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학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대표적 기업으로는 (주)비나지오, (주)벽진컴퍼니, (주)고영을 들 수 있음. 특히 이 기업들은 우리대학 패션디자인학과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
- 우리대학은 베트남 현지 대학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루고 공동 연구의 진행 과정 논의 및 MOU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음. 대표적 협력 대학으로는 VAN LANG University, Hoasen University, Nguyen Tat Thanh University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VAN LANG University와는 적극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 대학의 MOU 협약체결에 합의하고 2023년 10월 협약체결을 진행하도록 계획하였음. 이에 따라 보다 활발한 교류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 우리대학의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베트남 섬유산업 연합회(VITAS)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우리대학의 베트남 관·산·학 국제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산업의 서로 보완적 발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발전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음.



〈그림20〉 우리대학 베트남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표20〉 우리대학 베트남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활동 사례

<p>강릉원주대학교 대베트남교류협력 포럼 2019. 07. 01. 15:00-17:30 베트남 현황, 상호협력 및 반랑대학 사례 등 발표 : NGUYEN DAC THAI (VAN LANG UNIVERSITY 예술대학 부학장) 권진 (강릉원주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p>	  
<p>베트남 패션·섬유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및 연구 VITAS 베트남섬유의를류산업연합회 2016 - 2023</p>	
<p>패션섬유 제품 공동 개발 및 연구 시제품 제작 VINA GIO 2016-2023</p>	
<p>해외 가족회사를 통한 대학 홍보 및 교류 협력 2019. 01. 01. - 2019. 01. 05.</p>	
<p>베트남 대학과의 교류 협력 세미나, 공동연구, MOU협약 2016-2023 VAN LANG University, Hoasen University, Nguyen Tat Thanh University</p>	  

3.2. 인바운드(in-bound) 협력 사례

가. 우리대학의 베트남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은 우리나라에 학생 신분으로 대학 이상의 학업 혹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는 자를 말함.

-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 주도의 우수 인재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화 시대의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국내 대학의 정원감소, 유학수지 적자,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임.

-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국내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중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감소하고 베트남 유학생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 <표21>는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숫자의 변화는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특히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다소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반면 베트남 유학생의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보다 북미, 호주 등 영어 사용국으로 대상 국가를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한중관계의 영향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반면, 과거 10여 년간 국내 베트남인 유학생은 약 20배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여줌.

- 베트남인 유학생의 한국을 유학대상국으로 선호하며, 베트남 내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국민은 수준 높은 교육의 공급을 원하는 반면 아직까지 베트남 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외국 유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베트남 내의 국제대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VEYOND, 2022년 5월 12일, veyond.asia/university-of-vietnam).

-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해외대학에서 유학한 졸업자들은 국내 대학 졸업자보다 평균 34% 높은 연봉을 받는 것(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0년 10월 16일, dream.kotra.or.kr/kotranews)은 해외유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표21〉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2021:25) (단위: 명, %)

연도	합계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미국	기타
'21년	152,281	67,348(44.2)	35,843(23.5)	6,028(4.0)	3,818(2.5)	2,218(1.5)	37,026(24.3)
'20년	153,695	67,030(43.6)	38,337(24.9)	6,842(4.5)	3,174(2.1)	1,827(1.2)	36,485(23.7)
'19년	160,165	71,067(44.4)	37,426(23.4)	7,381(4.6)	4,392(2.7)	2,915(1.8)	36,984(23.1)
'18년	142,205	68,537(48.2)	27,061(19.0)	6,768(4.8)	3,977(2.8)	2,746(1.9)	33,116(23.3)
'17년	123,858	68,184(55.1)	14,614(11.8)	5,384(4.3)	3,828(3.1)	2,767(2.2)	29,081(23.5)
'16년	104,262	60,136(57.7)	7,459(7.2)	4,456(4.3)	3,676(3.5)	2,826(2.7)	25,709(24.7)
'15년	91,332	54,214(59.4)	4,451(4.9)	3,138(3.4)	3,492(3.8)	2,968(3.2)	23,069(25.3)
'14년	84,891	50,336(59.3)	3,181(3.7)	3,126(3.7)	3,958(4.7)	3,104(3.7)	21,186(25.0)
'13년	85,923	52,317(60.9)	3,013(3.5)	3,904(4.5)	4,503(5.2)	3,120(3.6)	19,066(22.2)
'12년	86,878	57,399(66.1)	2,458(2.8)	3,799(4.4)	4,503(5.2)	3,037(3.5)	16,013(18.4)
'11년	89,537	60,935(68.1)	2,332(2.6)	3,700(4.1)	4,645(5.2)	3,023(3.4)	14,902(16.6)
'10년	83,842	59,490(71.0)	1,919(2.3)	3,335(4.0)	4,090(4.9)	2,485(3.0)	12,523(14.9)

주 1)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 해당년도 총 외국인 유학생 수) × 100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가 포함됨

4) 아시아에는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수가 포함됨

- 교육기본통계(교육부, 2021:25-26)에 따르면, 2021년 출신 국가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를 보면 중국인 유학생은 59,774명이 베트남인 유학생은 24,984명이 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함.

-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진행중인 유학생 이외에도 비학위과정이지만 학업을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학생들도 상당수를 차지함. 전체 비학위 과정 유학생 중 베트남인 유학생은 10,859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중국인 유학생은 7,574명으로 23.5%를 차지함. 비학위과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학연수과정이나, 기타 직업교육과정에 해당됨.

〈표22〉 우리대학 유학생 입학 현황 (2017년이후)

년도	학위과정	국명	인원수
2018 전기	학사	베트남	5
	석사	중국	2
2019 전기	학사	베트남	2
		중국	2
		몽골	1
2019 후기	석사	중국	1
	학사	베트남	28
네팔		1	
라오스		1	
2019 후기	석사	몽골	1
	학사	베트남	23
중국		1	
우즈벡		1	
석사		베트남	2
		몽골	1
		네팔	1
2020 전기	학사	베트남	13
		중국	1
		인도네시아	1
	석사	몽골	1
네팔		1	
2020 후기	학사	베트남	9
		중국	2
		몽골	1
		러시아	1
		미국	1
2020 후기	석사	몽골	1
	학사	베트남	6
석사		중국	2
2020 후기	석사	-	-
	학사	베트남	2
중국		1	
몽골		1	
2021 전기	석사	베트남	1
	학사	베트남	14
중국		1	
몽골		2	
베트남		1	
2021 후기	학사	베트남	17
		몽골	2
		미얀마	1
		캄보디아	1
2022 전기	석사	-	-
		학사	베트남
2022 후기	학사		베트남
		몽골	2

- <표22>는 2017년 이후 우리대학 유학생 입학 현황을 나타냄.
- 2016년 이전 베트남 입학생 현황은 2011년 학사과정에 1명,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1명이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음. 우리대학의 인바운드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에서 베트남 유학생으로 변화된 기점은 2019년에 해당함.
- 우리대학으로 입학하는 베트남 유학생의 변화를 <표21>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향보다 2년정도 늦은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대학의 베트남 유학생의 입학은 <표22>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학사과정에 5명이 입학한 것이 다음해인 2019년(전기·후기 포함)은 학사과정으로 30명이 입학하여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음. 이듬해 2020년(전기·후기 포함)에는 학사과정 36명과 석사과정 1명으로 전년도 대비 입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의 전체적인 베트남 유학생이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와 다르게 우리대학은 2021년(전기·후기 포함)에는 학사과정 15명, 2022년(전기·후기 포함)에는 학사과정 16명과 석사과정 2명이 입학하였고, 2023년 전기에는 학사과정 17명이 입학하는 감소 추세를 보였음.
- 이는 2019년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유학생의 경향에 따라 베트남 유학생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우리대학 베트남 입학생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여짐.
-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우리대학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앞으로 우리대학의 해외 유학생의 유치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됨.
- <표23>는 우리대학 베트남 유학생의 학과별 입학 현황을 나타냄. <표23>에 보여지는 것처럼 베트남 유학생이 우리대학의 다양한 학과에 입학하여 여러 분야에서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특정 학과에 편중된 경향을 보임.
- 특히 석사과정 유학생의 경우 사회과학 대학에 편중된 특징이 나타남. 입학은 국제통상학과 3명, 관광경영학과 2명, 무역학과와 경영학과에 각각 1명이 입학하였음.
- 석사과정에 비하여 학사과정은 사회과학 이외에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회과학대학 입학 학생 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비율인 것으로 파악함.
- 우리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앞으로 베트남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함께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의 유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특히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의 상황에서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확보는 대학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임.
- 또한 한 나라에 편중되어 있는 해외 유학생의 비율에서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우리대학에

〈표23〉 우리대학 베트남 유학생 학과별 입학 현황

년도	유학생수		입학학과	
	성별	인원수	학부	석사
2010 ~ 2017	-	4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경영학과
2018 전기	남	7	관광경영학과	
	여	3	관광경영학과, 체육학과	
2019 전기	남	15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환경조경학과	
	여	13	국어국문학과,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2019 후기	남	10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일본학과, 정보통계학과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여	11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2020 전기	남	3	역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여	11	무역학과, 식품영양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2020 후기	남	2	무역학과, 전자공학과	
	여	7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2021 전기	남	2	관광경영학과, 경영학과	
	여	7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2021 후기	남	1	국제통상학과	
	여	5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2022 전기	남	-	-	-
	여	3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2022 후기	-	15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2023 전기	-	17	국어국문학과,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는 점차 급속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대학의 국제화 방향성 설정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임.

- 더불어 해외유학생이 여러 전공에서 학위과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학생 전공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폭넓은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여야 함.

3.3. 쌍방향 협력 사례

- 우리대학은 베트남과 쌍방향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19년 7월 강릉원주대학교 대베트남교류협력 포럼에서는 VAN LANG University 예술체육대학 부학장인 GUYEN DAC THAI이 베트남 협력 방안에 대하여 발표와 베트남 권역별 산업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 것으로 우리대학과 베트남 대학과의 쌍방향 협력 사례에 대한 예시를 잘 보여주었음.

- 2016년부터 우리대학 패션디자인학과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VAN LANG University, Hoasen University, 베트남 섬유산업 연합회(VITAS), (주)VINA GIO의 관계자들이 모여 패션·섬유 산업의 글로벌 발전 방안 및 협업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이 시작되면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직접적인 방문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회의를 통한 협력만 이루어졌음.

- 쌍방향 협력 사례의 결실로 2023년 10월에는 우리대학 LINC3.0사업단과 VAN LANG University는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 두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학·관·연의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2023년 11월에는 VAN LANG University의 연구진들이 우리대학을 방문하여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강릉원주대학교 대베트남교류협력 포럼을 다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23년 12월에는 우리대학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베트남 네트워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펜데믹으로 미루어진 다양한 협력과제 진행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에 있음.

- 더불어 2023년 12월에는 베트남 방문에서 우리대학과 베트남 산·학·관·연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글로벌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를 발굴할 예정임.

4. 결론 및 제언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예측됨. 우리대학의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화의 발전을 위하여 인적·물적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여야 함. 그를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우리대학과 베트남 사이의 정책적 협력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까지 베트남 글로벌 기업, 대학, 정부기관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였지만, 국제화된 세계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역량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글로벌 기업과의 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우리대학과 베트남 산·학·관·연 네트워크의 활동을 확대하여 상호 보완적 발전 관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대학 국제화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함.

베트남의 교육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 베트남 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대학의 베트남으로 직접 진출이나 교육 프로그램 수출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의 우리대학 졸업 후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하여 베트남과의 쌍방향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우리대학으로 들어온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개인의 선호 및 적성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국제화 대학으로써의 내실을 기야함.

유학생들의 글로벌 사회에서의 미래 활동에 대비하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내의 개별 대학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여야 함.

베트남 산·학·관·연 네트워크 확대하여 다양한 학사구조를 도입하고 학위취득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글로벌 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여 베트남 유학생을 포함한 우리대학 모든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제7장

대학의 국제화 방안 및 사례 :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
1. 국제개발협력의 동향
 2.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분야별 협력
 3. 기관별 교육분야 주요 협력 프로그램
 4. 우리대학의 주요 학과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연계(예시)
 5. 결론 및 제언

1. 국제개발협력의 동향

1.1.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개발과 번영을 촉진하고, 빈곤과 부조리를 줄이며, 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국제기구, 정부, 비정부 기구(NGO), 시민 사회(CSO) 및 민간 기업, 학계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추진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통해 후진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적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 해결, 보건, 교육,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포함함.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선진국에서 공여하는 원조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로 구분됨. 본절에서 국제개발협력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다룸

1.2.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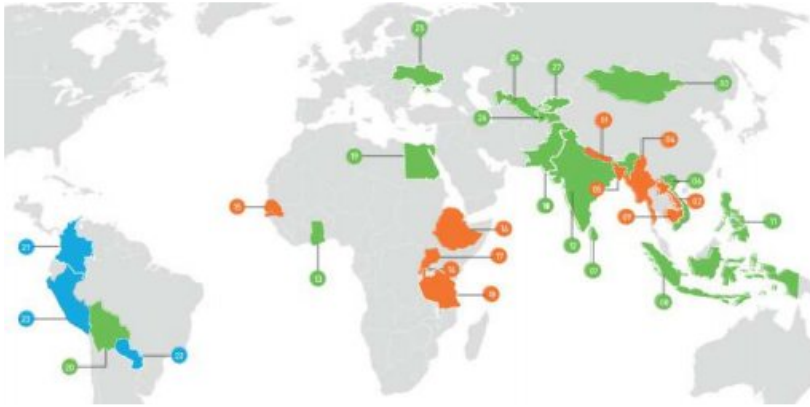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은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목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으로, 양국간 중장기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ODA의 효과성 제고함.

□ ODA 지원효과를 제고하고자 5년마다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운영함

-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 집중 지원하면서 중점협력국들과 협력을 강화
- 개별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전략적 ODA를 추진
- 2021년 1월 총 27개국의 제3기 중점협력국을 선정
-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원국의 발전수준, 경제·외교적 협력 실적, ODA 수행환경 및 경제·외교·통상 등 다양한 분야 협력잠재력을 평가
- 대외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수원국의 소득수준, 지역별 분포, 취약국 여부 등도 추가로 고려함.

현재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은 27개국으로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

국,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들에 대해 모두 CPS가 수립되어 있음<그림 21>, <표24>.



<그림21> 중점협력국 분포

<표24>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가(27개)

분류	국가
아시아 (12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7개국)	에티오피아
	가나
	이집트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중동 CIS (4개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 (4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1.3. 국제개발협력의 동향

□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 이행을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 기여

- 긴축 재정에도 ODA 예산은 확대기조 유지, UN총회·G20 정상 회의 등 계기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천명

□ 개발협력 규모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ODA를 통한 글로벌 현안 해결 기여 필요

- ODA 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의 ODA 역량 강화, 국내외 ODA 시장에 대한 기업 진출 활성화 등 민간의 역할 확대 필요

- 국익·실용의 국정운영 원칙을 토대로 ODA 내실화 통한 상생의 국익 실현 및 국민 공감*을 토대로 한 ODA 추진 병행 필요

□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계기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부산 이니셔티브” 선언

〈부산 이니셔티브〉

-한국의 독특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불평등과 기후변화, 교육기회 부족, 글로벌 보건격차, 식량불안 등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도전과제를 해결을 위해 ①기후변화 ②디지털 격차 ③보건 위기 ④식량 안보 ⑤인력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프로젝트

-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국격에 걸맞은 ODA 및 선진국형 ODA를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 및 상생의 국익 실현 추진,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

ODA를 통해 코로나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위기 속 취약국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ODA 효과성 강화를 추진함 <그림22>.

-식량위기 대비를 위해 취약국에 대한 식량지원과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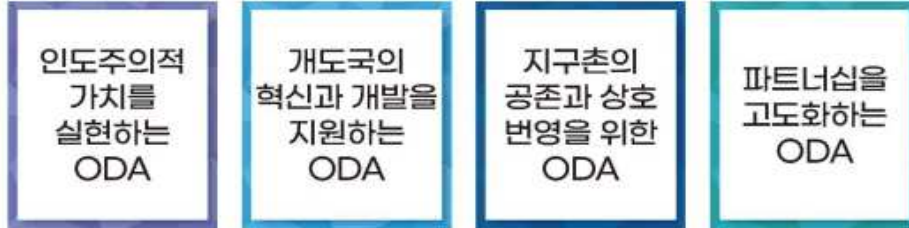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략적 그린 ODA를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선도

-미래세대 인력양성과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상호호혜적인 협력 추진

비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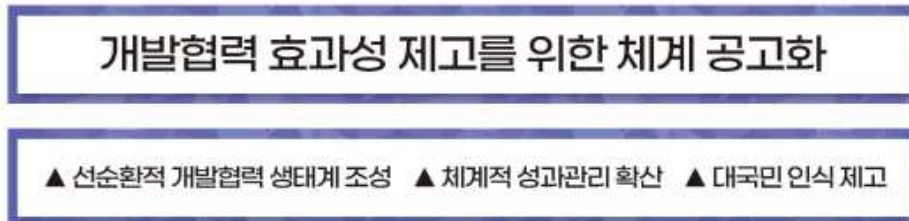
전략
목표



중점
과제



이행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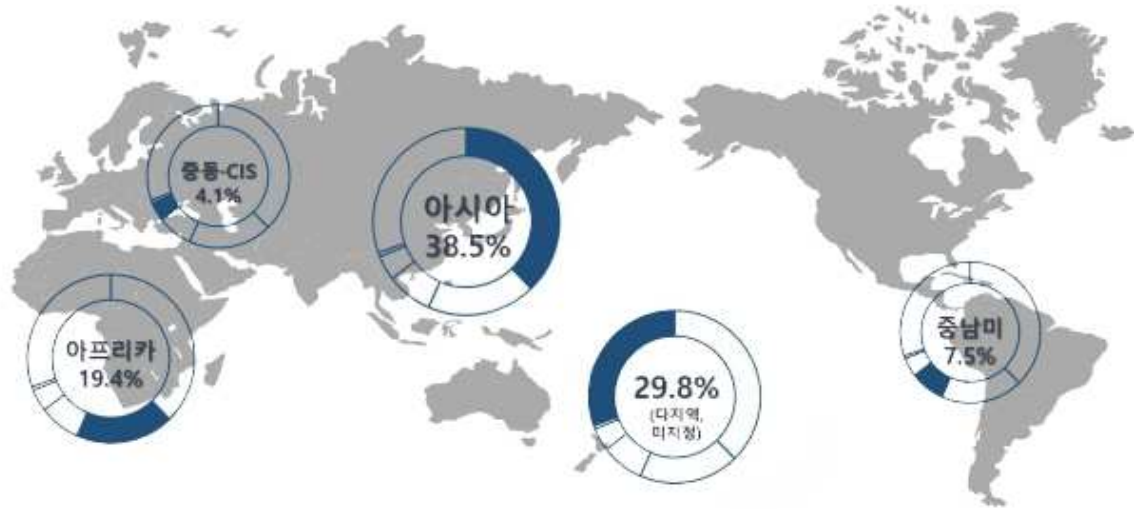
〈그림22〉 23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계획

2.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분야별 협력

2.1. 2023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2023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4조 7,771억원으로, 총 45개 기관 1,840개 사업 추진

- 지역별로 아시아(38.5%), 아프리카(19.4%)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중남미(7.5%), 중동·CIS(4.1%) 등 비중 감소<그림23>



<그림 23> 23년 공적개발원조 지역별 예산 분배율(단위:%)

- 분야별로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순이며, 인도적 지원(1.2%p)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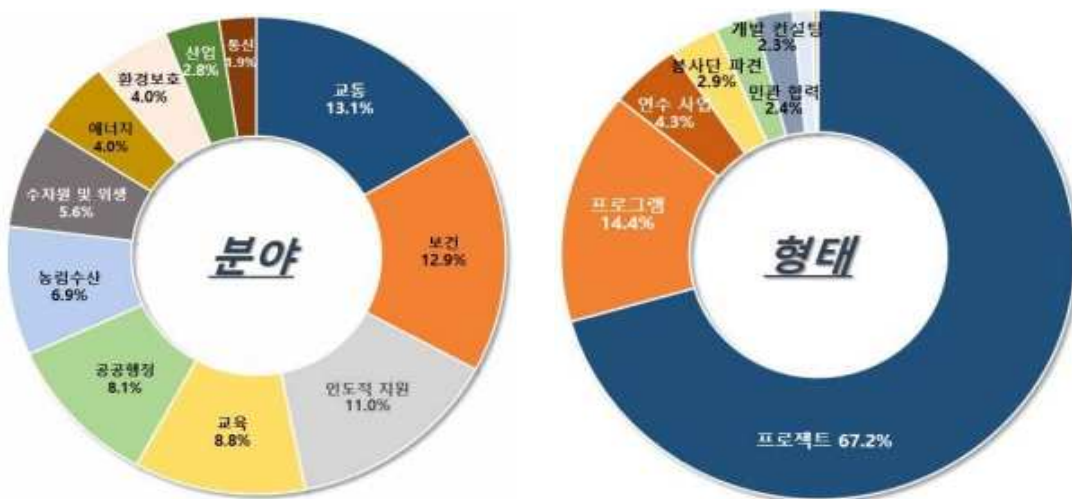
<표25> 분야별 공적개발원조 현황

구분	구분	교통	보건	인도적 지원	교육	공공 행정	농림 수산	수자원 및위생	에너지	환경 보호	산업	통신	기타
규모 (억원)	유상	4,287	2,770	-	692	1,149	561	1,696	1,020	865	-	637	1,352
	무상	529	1,963	4,036	2,541	1,825	1,989	351	462	588	1,020	66	6,339
	총계	4,816	4,733	4,036	3,233	2,974	2,550	2,047	1,482	1,453	1,020	703	7,691
비중 (%)	유상	28.5	18.4	-	4.6	7.6	3.7	11.3	6.8	5.8	-	4.2	9.0
	무상	2.4	9.0	18.6	11.7	8.4	9.2	1.6	2.1	2.7	4.7	0.3	29.2
	총계	13.1	12.9	11.0	8.8	8.1	6.9	5.6	4.0	4.0	2.8	1.9	20.9

- 사업형태별로 프로젝트(67.2%) 중심으로 프로그램(14.4%), 연수사업(4.3%)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그림24>

<표26> 사업형태별 공적개발원조 현황

구분	구분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사업 (장학지원 포함)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개발 컨설팅	행정비용	기타 기술협력	기타
규모 (억원)	유상	14,001	1,029	-	-	-	-	-	-	-
	무상	10,703	4,245	1,589	1,059	873	854	452	72	1,862
	총계	24,704	5,274	1,589	1,059	873	854	452	72	1,862
비중 (%)	유상	93.2	6.8	-	-	-	-	-	-	-
	무상	49.3	19.6	7.3	4.9	4.0	3.9	2.1	0.3	8.6
	총계	67.2	14.4	4.3	2.9	2.4	2.3	1.2	0.2	5.1



<그림24> 23년 공적개발원조 분야별(좌) 형태별(우) 비중 (단위:%)

2.2. 분야별 국제협력

- 전쟁 및 내전·자연재해·식량위기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응,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생존·민생 지원 강화
 - 특히, 분쟁국 현황·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패키지 발굴, 전쟁 피해 복구 및 전후 재건 지원 * 분쟁·취약국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난민 등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등 사업 확대 및 식수, 위생 등 여타 인도적 지원사업과 연계·발굴

- 곡물 가격상승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개도국 기근·식량부족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식량위기 대응 사업 발굴
- 식량원조 사업과 병행하여,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지원 및 재배기반 조성 등 식량안보 관련 패키지 사업 발굴
- **수원국 과학기술·ICT 발전수준 및 현지 수요 등을 반영한 국가별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형 모델 확산 지원**
 - 과기·ICT 중점협력공관(베트남, 캄보디아, 르완다, 페루) 및 과기·ICT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별 특화된 시범 사업 발굴·추진
 - * 수원국의 혁신역량에 따라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수산업,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기후 등) 6대 분야 중심 디지털 전환 촉진
 - 정보통신 인프라 부족 및 경제력 차이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사업 발굴 병행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기획·발굴 계속**
 - ‘그린분야 ODA 비중의 OECD DAC 평균 이상 확대’라는 정책
- **환경 분야 사업(기후·환경·재생에너지 등) 외 물·위생, 교육, 지역개발 등 ODA 전 분야 사업 발굴시 기후변화 대응요소 등을 반영토록 기획**
 -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지속하되,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수원국의 예방환경 조성 등 보건의료 체계구축 사업 중점 발굴- 개도국의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 방역·백신·접종 인프라지원* 지속 및 치료제·진단기기 접근성 강화 사업 추진
 -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 및 종합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⁵⁾추진
- **개도국 수요가 많고 국제적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행정제도·시스템(조달·디지털정부·관세행정 등) 지원 확대**
 - 공공분야의 행정제도·시스템 선진화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개도국의 법·제도 또는 행정시

5) 필수 의료기기·의약품 지원, 보건·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관·시설 구축, 인력양성 사업 등- 식수 등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 위생·보건 인식 제고 등 보다 중장기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발굴

시스템 구축·개선 사업(단순 역량강화 사업은 미해당)

- 공공행정 제도·정책 컨설팅 -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유지보수등사업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ODA 전반적인 단계에 걸친 연계사업 추진

3. 기관별 교육분야 주요 협력 프로그램

3.1.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가. 교육분야 ODA 현황 및 추진방향

- 보건·의료 대응체계 구축, 인도주의 실현 강화, 경제 회복력 증진 기후 변화 대응 선도
- 녹색 전환 맞춤형 지원, 그린 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 상생발전의 그린뉴딜 개발협력 혁신 다각화
- 디지털 뉴딜 ODA 지원, 프로그램 혁신 및 재원 다양화, ODA 효과성·책임성 제고 파트너십 선진화
- 시민사회 등 민관협력 공고화, 양자·다자 개발협력 고도화,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 국가별 ODA 지원전략은 국가협력전략(CPS, 중장기 개발협력 방향 및 주요 분야 등을 설계)를 참고
- 교육부는 100개의 ODA 사업(약 931.9억) 운영 중이고 세부 사업으로 국제협력 선도대학, 글로벌 교육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있음.

나.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 **사업목적:** 현지 수요를 반영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 확보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총 7년(3+2+2년) 또는 6년(2+2+2), 전문대학 5년(2+2+1)
 - 지원대상 : 국·공·사립대학 (전문대 포함) 및 대학-대학, 대학-전문대학 간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과제당 1차년 100백만원, 2~7차년 400백만원 내외
 - 사업내용 : 국내 대학이 개도국 내 대학과 협력을 통해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 패키지형 지원으로 개도국 고등교육 역량강화 기여

• **추진배경**

- 현지 수요를 반영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확보 지원
-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실행기관으로서 국내 대학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제 소양 함양과 국제교육협력 저변 확대
- 사업 개요: 국내 대학과 수원국 대학을 1:1로 매칭하여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신설 및 개편
- 학부(단대) 신설 또는 교과 개편은 필수로 진행하되, 필수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 산학, 보건 등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선택적 운영

다. 주요 사업내용

〈표27〉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주요 사업내용

주요 내용	비고
[필수] 학과(또는 학부/ 단과대학) 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교과 개발(개선), 전담 교직원 파견, 기자재 제공, 컨설팅 등 자원 지원	학과 승인 절차와 소요기간, 승인 가능성, 리스크 관리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교원양성] 정부초청장학생사업과 연계, 협력 대학 교수(학생) 석·박사 취득 지원 - 석·박사 취득 후 협력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지속가능성 확보	2-3차년도에 각 2명 배정(총 4명), 타 대학과 협력을 통해 GKS 장학생 배정 가능
[선택] 필수 사업과 연계, 현지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운영 - 협력대학과 국내 대학의 인프라(역량)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양(한국문화 이해, 한국어 교육 등)

3.2.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

가. 글로벌 연수사업(KOICA Fellowship Program) 추진방향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3조, 글로벌연수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도국 주요 인사(정책입안자,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사업(초청/현지/비대면 등) 실시함.
-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고유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

- 써 개발도상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수원국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수원국의 성장 원동력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위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 (수원국 조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수원국의 자립적 개발과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조직 역량강화 및 제도적 역량강화
 - (파트너십 강화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수원국과의 조직적·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나. 글로벌 연수사업의 유형

〈표28〉 글로벌 연수사업의 유형

분류기준	과정명	주요 내용
참가국	국별연수	1개 특정 수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강화 연수
	다국가연수	2개 이상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강화 연수
학위수여	석사학위 연수	다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연수생의 석사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연수
	일반연수	석사학위연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국별/다국가연수를 통칭

다. 국별연수 해당 국가

- 1개 특정 수원국(KOICA 해외사무소 주재국 47개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강화 연수

〈표29〉 국별연수 해당 국가

지역	국가
아시아(15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아프리카(16국)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DR콩고,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중남미(8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중동중앙아유라시아(8국)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요르단,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팔레스타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라. 글로벌 연수사업의 추진 절차



〈그림25〉 글로벌 연수사업의 추진 절차

• 공모 시기

- 다수의 연수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심사하는 공모방식으로 n-1년 12월~n년 1분기 경에 공모함.

• 연수 공모기관

-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 의지를 보유한 기관
- 지원 대상국가 및 각 역량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기관
- 과정 추진 당해연도 예산계획에 따라 연수형태(초청, 현지, 온라인, 혼합 등) 전환이 가능한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nebid.koica.go.kr>)을 통해 업체정보 조회 및 전자문서로 약정 체결이 가능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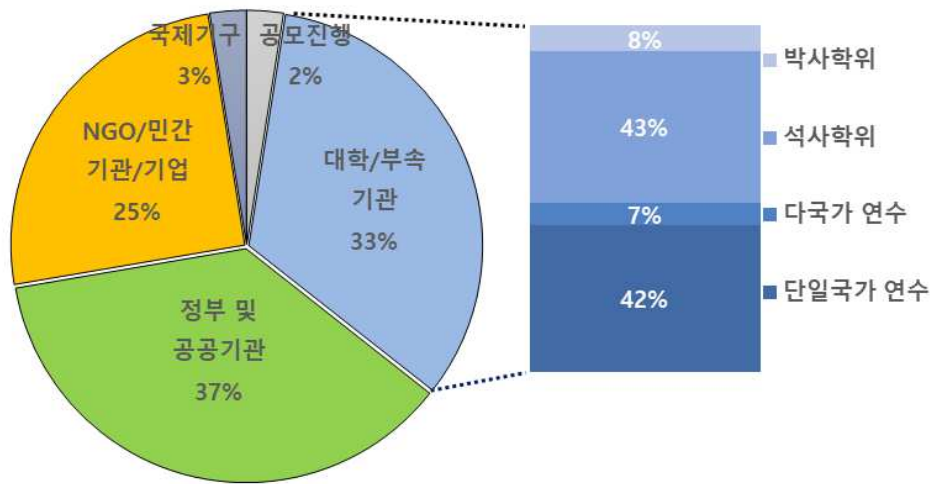
• KOICA 파트너 협업시스템(<https://kopis.koica.go.kr/ocs/>) 통해 제안서 제출

• 연수 제안서의 평가

- KOICA 내/외부 위원 동수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평가(심사위원 4인 평균점수) 및 정량평가 후, 이를 합산하여 고득점 기관 선정(가격 미평가)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설명(PT)을 요구할 수 있음.

마. 글로벌 연수사업의 추진 현황

2023년 글로벌 연수사업은 총 275개 과정으로, 160여개 기관이 수행중이고 이중 대학은 40개(33%)가 98개 사업을 진행중임. 연수사업의 유형별로 단일국가 연수>석사학위>박사학위>다국가 연수의 순임.



〈그림 26〉 23년 글로벌연수 추진 기관별 현황 (단위:%)

바. 글로벌 연수사업의 추진 현황

다음은 40개 대학에서 수행중인 98개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중임.

〈표30〉 글로벌 연수사업의 추진 현황

기관명	연수 프로그램 개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연구원, 미래성장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원)	17
KDI국제정책대학원	10
연세대학교	6
경북대학교	5
서울대학교	4
한동대학교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연구원)	3
인천대학교	3
성균관대학교	3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3
한양대학교	2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
한국해양대학교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2
이화여자대학교	2
아주대학교	2

기관명	연수 프로그램 개수
송실대학교	2
서울시립대학교	2
강원대학교	2
KAIST	2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1
한국항공대학교	1
한국폴리텍대학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한국교원대학교	1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
조건부지명(울산대)	1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원)	1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
영남대학교	1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1
순천향대학교	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
부경대학교	1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전자조달지원센터	1
고려대학교	1
경찰대학	1

사. 강원도 및 유사 대학 글로벌 연수 추진 현황

〈표31〉 강원도 및 유사 대학 글로벌 연수 추진 현황

기관명	연수 프로그램 명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라크 병원관리시스템 역량강화('21-'23)
	도미니카 공화국 병원 관리 역량강화 과정('22-'24)
한국해양대학교	지속가능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및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역량 강화('22-'24)
	해양수산생명과학 역량강화('23-'25)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농업경제 역량강화('20-'24)
	석사학위-농업경제('23-'27)
인천대학교	박사학위-기후변화대응('22-'26)
	석사학위-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19-'23)
	석사학위-기후변화대응('22-'26)

아. 글로벌 연수사업 우수 사례

〈표32〉 글로벌 연수사업 우수 사례

연수 제목	KOICA 글로벌연수 사업 완료 후 몽골의 전자정부 개발에 대한 기여																															
협력 국가/부처	몽골 /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uthority																															
연수 사업 형태	학위연수/글로벌 ICT 융합(2016 ~ 2017)																															
연수 기관	송실대학교																															
배경	<p>몽골 전자정부프로그램(the E - government National Program, 2012-2016) 계획에 따른 전자정부 구축의 핵심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나, 2016년 전자정부발전지수 (EDGI, the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에서 몽골은 84위의 수준이었음</p>																															
투입 및 활동	<p>-연수기관 : 학위 과정을 통한 한국의 경험(EDGI, 세계 3위) 및 개도국이 직면한 공공분야 ICT</p> <p>-과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전문 지식 공유, 몽골 상황에 맞춘 현업 적용 가능 실무 교육 실시</p> <p>-연수생 : 학위 수료 후, 사후관리 일환인 동창회(KOICA club)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몽골 내 혹은 타 개도국과의 ICT 분야 지식확산활동추진 등</p>																															
결과	산출	<p>전자 형태로 특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제 25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서비스 대책에 대한 정부 결의안 제 149호(“공공 서비스 센터” 재설치) · 통합 공공 e-서비스 플랫폼 “e-Mongolia” 대책에 대한 정부 결의안 제90호 · “국가 데이터 센터별 서비스 제공 절차” 규정 개발 신규 프로젝트 제안, 시스템/구조 개발 ·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개발 · 통합 공용 e-서비스 플랫폼 “e-Mongolia”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전자정부 관련 정책 문서</th> <th>QR 코드</th> <th>No.</th> <th>전자정부 관련 정책 문서</th> <th>QR 코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전자 형태로 특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259호</td> <td></td> <td>5</td> <td>통합 전자 민원 서비스 플랫폼 “e-Mongolia”</td> <td></td> </tr> <tr> <td>2</td> <td>정부 서비스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149호 (“민원 센터”의 재 설립)</td> <td></td> <td>6</td> <td>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td> <td></td> </tr> <tr> <td>3</td> <td>통합 전자 민원 서비스 플랫폼 “e-Mongolia”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90호</td> <td></td> <td>7</td> <td>“통신 정보 용어집”</td> <td></td> </tr> <tr> <td>4</td> <td>“국가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규정</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No.	전자정부 관련 정책 문서	QR 코드	No.	전자정부 관련 정책 문서	QR 코드	1	전자 형태로 특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259호		5	통합 전자 민원 서비스 플랫폼 “e-Mongolia”		2	정부 서비스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149호 (“민원 센터”의 재 설립)		6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		3	통합 전자 민원 서비스 플랫폼 “e-Mongolia”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90호		7	“통신 정보 용어집”		4	“국가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규정				
	No.	전자정부 관련 정책 문서	QR 코드	No.	전자정부 관련 정책 문서	QR 코드																										
1	전자 형태로 특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259호		5	통합 전자 민원 서비스 플랫폼 “e-Mongolia”																												
2	정부 서비스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149호 (“민원 센터”의 재 설립)		6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																												
3	통합 전자 민원 서비스 플랫폼 “e-Mongolia”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90호		7	“통신 정보 용어집”																												
4	“국가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규정																															
성과	<p>-총 25개 정부기관의 181개 서비스가 “e-Mongolia”로 통합</p> <p>-2021년 상반기 현재 e-Mongolia 웹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약 161만명 (각각 160만 명과 5,600명) 서비스 이용 중</p>																															

4. 우리대학의 주요 학과별 SDG 연계(예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는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발전과 협력에 기여하는 중요한 책무임.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⁶⁾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환경과 자연과학 관련 전공:**

- SDG 6: 깨끗한 물과 산재를 보장하고 위험을 관리
- SDG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접근
- SDG 13: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대응 및 영향 최소화
- SDG 15: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사회과학 및 경영 관련 전공:**

- SDG 1: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빈곤 해소
- SDG 4: 고품질 교육과 기회 보장
- SDG 8: 경제성장과 적정고용 촉진
- SDG 10: 불평등 감소와 사회통합
- SDG 16: 평화와 정의 증진

- **의료 및 보건 관련 전공:**

- SDG 3: 건강과 복지 증진
- SDG 6: 깨끗한 물과 환경 보장
- SDG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증진 (의료 인프라 개선)
- SDG 17: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

- **인문과학 및 문화예술 관련 전공:**

- SDG 4: 고품질 교육과 문화적 교양 증진
- SDG 5: 성 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
- SDG 10: 불평등 감소와 사회통합 (문화적 불평등 개선)

- **공학 및 기술 관련 전공:**

- SDG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접근

6)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에 UN 회원국들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 목표로, 2030년까지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SDG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증진 (기술 혁신)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구축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촉진

〈표33〉 우리대학의 주요 학과별 SDG 연계

SDG	관련 학과 예시
SDG 2 식량 안보와 영양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방안을 개발하여 식량 안보를 증진시킨다.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식품영양학과, 해양바이오식품학과, 해양생태환경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과학과
SDG 3 건강한 삶과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 체육활동과 음악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	체육학과, 음악학과
SDG 3 건강한 생활과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 치아 건강, 구강 위생 및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기여한다.	치의예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SDG 4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여 공평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교육과, 다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SDG 4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및 사이언스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
SDG 4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언어 교육과 문학 연구를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SDG 4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SDG 6 깨끗한 물과 적절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공학 기술을 적용한다.	생명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SDG 7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개발과 이용을 통해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SDG 7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을 지원한다.	전기공학과
SDG 8 적절한 경제 성장과 산업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경제 및 경영 지식을 활용한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SDG 8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개발을 위해 관광 산업 관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활용한다.	관광경영학과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및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산업경영공학과

SDG	관련 학과 예시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링과 물리학적 이론을 활용하여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수학물리학부, 수학물리학부 수학기공, 수학물리학부 물리-에너지전공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다.	전기공학과
SDG 9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소재 기술과 재료 공학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SDG 9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기술(IT) 및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SDG 9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계 및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성장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SDG 9 혁신적인 기술과 ICT 발전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 시스템과 교통 수단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한다.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계획과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시 개발 및 국토 이용을 지원한다.	도시계획·부동산학과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자치체와 지방 정부의 발전을 지원한다.	자치행정학과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 보호와 조경 디자인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환경조경학과
SDG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자원 효율성 및 폐기물 관리 등을 개선한다.	산업경영공학과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패션 디자인을 추구한다.	패션디자인학과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과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조형예술·디자인학과
SDG 13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참여한다.	수학물리학부, 수학물리학부 수학기공, 수학물리학부 물리-에너지전공
SDG 14 해양 생태계 보전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하여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식품영양학과, 해양바이오식품학과, 해양생태환경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과학과
SDG 16 정의와 강력한 기관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및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와 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학과
SDG 16 평화로운 사회와 강력한 기관을 구축하기 위해 철학적인 사고와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여 정의, 법치, 평등, 인권을 탐구한다.	철학과
SDG 17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 무역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기울인다.	국제통상학과

5. 결론 및 제언

각 학과별로 관심있는 주제, 분야, 사업의 형태에 맞춰 활발한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 측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자원과 예산 배분: 대학 측에서는 국제화 추진에 충분한 자원과 예산을 할당해야 함. 예를 들어,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제안시, 전체 예산의 10%를 매년 대학 자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함. 교원 및 강사의 활용, 국제교류 프로그램, 교환학생 지원, 국제 학술 컨퍼런스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해외 대학과 MOU 체결 확대 및 활용: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실을 중심으로 협정이 체결된 대학의 현황을 홈페이지 자료실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고, 해외대학과의 MOU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또한 협정에 근거, 교육, 연구, 학생 및 교직원을 교류를 활성화함.
- 국제교류 프로그램 강화: 학과별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함. 해외 대학과의 학술 교류나 공동 연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국제 학회 개최 등, 협력대학 교원/연구자의 초빙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함.
- 외국어 지원 및 교육: 학생들과 교직원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함. 외국어 강의, 언어 교환 프로그램, 외국어 회화 연습 등을 제공하여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문화적 이해와 적응 지원: 해외 교류나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관행을 경험하도록 함. SDG, 문화 교육과 국제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 문화 교류 행사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전문가와의 협력: 각 학과별로 국제화를 추진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산업체, 연구 기관, 국제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함.
- 국제협력 전략 수립: 대학본부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 필요함. 이를 통해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학생 및 교수진의 참여 독려: 국제화 추진에 있어 학생과 교수진의 참여가 중요함. 국제교류나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진에게는 국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함.

참고문헌

한국국제협력단(2023),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관계부처합동(2023),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교육부 (2022), 교육분야 ODA 및 국제협력선도사업 육성·지원사업 추진방향

제8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인구 저하에 따라 시급하게 추진되는 지방대학의 클로컬 30사업 등 급박한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 대학 국제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교수회 정책연구과제로 시도되었다. 이하 각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에 가름하고자함.

제 2장에서는 최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화 전략과 연계한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가 능성 및 전략”을 논구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대학의 국제화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 운영: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한 시험인 토플 및 GRE (미국 대학원입학자격시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도서관 24시간 운영을 하며 외국 대학원 입학시에 학교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대가 아닌 질적 성장 필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는 3급 이상의 성적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도 수업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수업을 따라오게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해외 중요 인력으로 정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Bottom-up 방식을 통한 개별 학과를 통한 외국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화 증대: 외국 대학과의 협력을 하는데 있어 학교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도 좋지만 개별 학과를 통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학술회의 참석에 따른 대학 해외 홍보: 국제화 시대에 맞아 지역의 대학이 해외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교수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해외 또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대회에 참가를 하여 학교를 알리는 것이 필요함.

-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교원의 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진행시에 다양한 혜택 제공 및 국제공동 연구에 대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 대학원생의 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 3장의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내국인학생 감소에 대한 대체 자원 확보차원만이 아니라 대학의 글로벌 위상과 역량, 달리 말해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강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최근 대학 혁신 요구와 함께 강조되고 있음.

- 강원도 소재 강릉원주대학교는 수도권 등 타지역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유학생 유

치에 소극적이었고 유치 규모도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어학연수생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어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 간, 지역 간, 대학 간 외국인유학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강릉원주대학교가 우수한 외국인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굴·입학, 수학 및 생활, 졸업 후 귀환 혹은 정착의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함.

-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편중된 외국인유학생의 출신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부에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출신 유학생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특히 해외 자매결연 대학을 확대 요구). 또한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하는 전공/학과도 다양화되어야 함. 통합 강원대가 실현될 경우 네 개 캠퍼스별 균형있게 유학생 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유학생 유치가 미미한 캠퍼스는 보다 공격적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본교 졸업 이후 경로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도 요구됨: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이 수학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유형, 강원도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하는 유형, 지역 범주를 넘어 전국 단위로 취업/활동하는 모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학업 및 진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본교 출신 유학생(졸업생)들을 네트워크하고 졸업 이후에도 본교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가칭 KNU Global Alumni Network 운영 제안).

제 4장에서는 우리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의 국제화, UN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도하였음.

- 우리 대학의 국제화 설문 결과: 대학의 국제화 목적에 대한 응답 내용을 요약하여 해석하면, 교수들은 우리 학생들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재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국제인지도가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주요 21개 국제화 프로그램별 중요도 응답 및 필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요도 응답 순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본부의 노력(4.00)이 가장 높고, 학생연구 국제학회 발표 조성(3.87)이 2순위로 나타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전체 21개 항목 중 5순위 정도로 평가됨.

- 필요도 분석에서는 ‘전공별 연구 네트워크 운용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의 국제화 목적은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인재 양성 교육이지만, 이를 실행할 중요 주체인 대학교수의 국제연구 자질이 당연히 선행되어야할 것이라는 것이 논리적임.

- 우리 대학 교수 설문에서 나타난 지속가능성 인식에 대한 해석: 응답 교수 개인들은 본인 전공 분야가 연구와 교육에서 SDGs와 연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설문 21>에서 보듯이 우리 대학 전체에 대하여 인식할 경우에는 연관이 높은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

- 한편 우리 대학의 SDG교육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할 것이라 응답(63.7%) 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 자신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 및 전체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학과, 전공간 장벽으로 인해 서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고, 향후 소통을 통하여 SDGs 목표를 위한 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됨.

제 5장에서는 우리 대학이 보유한 연구역량(전문인력, 기술 등)을 활용하여 2중 내륙국가인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양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이를 통해 식량난과 고용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육류중심의 소비문화 개선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위한 기술지원과 지속가능한 상호 교류 및 발전이 가능한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그 과정을 사례로 제시하였음.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분야에 IT 기술 접목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양국간 지속가능한 교류 및 발전을 위해 사업 과정에서 양성된 인력(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재직자)을 현지에서 상주(졸업생 취업 및 재학생 현장실습 등)할 수 있는 '산학교류협력센터' 구축까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 본 사업을 통해 우리대학이 기아종식(SDG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SDG 14),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SDG 8)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제 6장에서는 가속화되는 세계화 환경속에서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리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화 협력 프로그램 기획하여 운영하고 다각적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베트남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국제화 역량을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우리대학은 베트남과 아웃바운드 협력, 인바운드 협력, 그리고 쌍방향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아웃바운드 협력 사례는 해외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외현장실습 운영, 베트남 산학협력 연계체계 구축, 베트남 국제화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대표적임. 인바운드(in-bound) 협력 사례로는 우리대학의 베트남 유학생 입학에 꼽을 수 있음. 쌍방향 협력 사례로는 강릉원주대학교 대베트남교류협력 포럼, 베트남 현지에서 패션·섬유 산업의 글로벌 발전 방안 및 협업 관계에 대한 세미나 개최, 베트남 대학과의 MOU 체결이 대표적 진행 사항임.

- 현재까지 우리대학은 베트남 글로벌 기업, 대학, 정부기관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였지만, 국제화된 세계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역량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의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하여 우리대학 국제화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가야 함.

- 베트남의 교육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 베트남 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대학의 베트남으로 직접 진출이나 교육 프로그램 수출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의 우리 대학 졸업 후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하여 베트남과의 쌍방향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베트남 산·학·관·연 네트워크 확대하여 다양한 학사구조를 도입하고 학위취득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글로벌 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여 베트남 유학생을 포함한 우리대학 모든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제 7장에서는 우리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한 중점협력국가협력전략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살펴봄. 최근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부산 이니셔티브에서 제기된 ①기후변화 ②디지털 격차 ③보건 위기 ④식량 안보 ⑤인력양성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의 세부 내용과 전략을 검토함.

- 실제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대학에서 접근이 가능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별 유형과 모범사례를 제시함. 추진중인 글로벌 연수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강원도 및 우리대학과 유사한 규모의 대학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학과별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 방안을 분석, 제시함.

- 현단계에서 우리 대학이 국제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대학과 구성원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구체적으로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실을 중심으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현황을 홈페이지 자료실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고, 해외대학과의 MOU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협약에 근거, 교육, 연구, 학생 및 교직원을 교류를 활성화함.

- 또한 다양한 정부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에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할당해야 함.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선도대학사업 제안시, 전체 예산의 10%를 매년 대학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는 등 일정 비율에 분담금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어 본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